1989-2019

UNKS

북한대학원대학교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북한대학원대학교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권두언 김선향 심연학원 이사장 ····· 04

발간사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06

격려사 고 건 전 국무총리 ····· 08

강창희 전 국회의장 ····· 10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 12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 14

회고사 염홍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제2대 원장 ····· 16

고병철 북한대학원대학교 제2대 총장 ····· 18

고현욱 북한대학원대학교 제3대 총장 ····· 20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제4대 총장 ····· 22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제5~6대 총장 ····· 24

사진으로 본 북한대학원대학교의 30년 ····· 26

북한대학원대학교 30년의 개요 ····· 38

북한대학원대학교 30년의 활동 ····· 58

미래로 박재규 설립자 / 북한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 120
전 통일부 장관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김 선 향

권 두 언

2019년,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학교법인 심연학원 이사장으로서 『북한대학원대학교 30년사』 권두언을 쓰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느 하나 쉽지 않았던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학생들과 동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1980년대 말, 견고한 '철의 장막'을 자랑하던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연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과, 소련이 붕괴되었으며, 유럽에서 냉전의 첨병이었던 동·서독이 통일되는 등 철옹성 같았던 냉전체제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한국은 세계사적 흐름에 편승하며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북방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닥쳐올 한반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자 박재규 총장은 1986년 미수교 상태였던 중공을 방문해 '공산권 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경남대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생 및 교수들을 중국으로 보내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미수교 상태였던 소련에 대한 체험 교육도 시작하였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였으나, 선도적인 과감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자연스럽게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대한 절박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앞으로의 변화와 도전을 감안하여 1972년 설립되어 공산권 연구에 집중하고 있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전문적이면서 심도 있는 교육을 위해 1989년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내에 북한학과를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하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학과 개설을 축하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렇지만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코 피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이겨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998년에는 국내 최초의 북한 전문대학원인 '경남대 북한대학원'을 개원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을 위한 인재 양성 '메카'로 대내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화해·협력 정책이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2004년 경남대 북한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북한 전문 대학원대학교인 '북한대학원대학교'로 다시 한번 도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외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전문가·학생들이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북한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 교육, 언론, 안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석·박사 학위 과정을 비롯해 통일미래최고위과정 등 전문교육 과정을 거쳐간 동문들이 총 3,569명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의 역할과 시대적 소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고, 사회가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남북관계에 부침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있어 북한문제 연구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시대적 부름에 제대로 부응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개척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에서 교훈을 찾아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학생들과 동문들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저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30년 동안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해주신 각계각층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부단히 연구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인재양성의 최고의 메카로 성장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격려·성원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안 호 영

발 간 사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지난 30년 동안 놀랍게 발전해 북한학 연구와 교육의 메카가 되기까지 배우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틀을 세우고 이끌어 주신 박재규 명예총장님, 김선향 이사장님, 그리고 역대 총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교직원, 무한한 애정으로 학교를 아끼시는 대학원생과 동문,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학교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89년 우리 학교가 처음 설립된 시기는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체코슬로바키아 벨벳혁명을 시작으로 동유럽의 민주화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혁과 개방의 기치를 내세우고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변모를 시도하려 했지만 공산권의 급속한 붕괴를 내다보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학교는 세계사적인 흐름과 남북 관계의 변화를 생각하며 북한 및 통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통일 논의가 진전될 때 우리 북대인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때로는 실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30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9년의 지금 세계는 어떠한 흐름 속에 있고 남북 관계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학교 설립 30주년을 맞아 축하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미래에 관한 질문을 더욱 진지하게 대면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 질서의 측면에서, 북한 내부의 차원에서도 대단히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의 확대와 국제 제도를 통한 다자 협력으로 대변되는 신국제질서가 미. 중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이제까지 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계화의 흐름이 점점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논의가 확대되고 있듯이 신기술을 통한 생산 방식의 변화가 각국의 성장 동력, 그리고 이어 전세계 권력 구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이 가장 현저하게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향배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냉전의 해체에서 오는 안보 불안을 핵무기의 개발로 대응한 북한이 경제 성장을 통한 내부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속화된 시장화를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북한의 정치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경제 성장을 위한 개혁, 개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화와 국제 경제 체제로의 편입이 뒤따를 텐 데 북한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 인지,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이완된 국가 체계를 어떻게 복구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지 등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렇듯 복잡한 북한 내부의 문제와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북·미 관계, 북·중 관계, 북·러 관계의 역학이 강대국들 간의 관계와 함께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차원, 지역적 차원, 그리고 북한에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남북 관계의 긍정적 변화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이라는 방향을 향하여 큰 방향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한발 씩, 한발 씩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30년 동안 바로 이러한 노력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학자, 관료, 전문가가 의견을 나누고 북한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는 북한·통일 분야 교육·연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두가 30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큰 변화의 시기에 북한학의 중심지로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내려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발간하는 『북한대학원대학교 30년사』에는 앞으로도 북한·통일 분야 교육·연구의 메카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30년을 함께 만들어 주시고 기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대학원대학교 30년사』의 발간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도 또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국무총리
고 건

격 려 사

우리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지난 30년동안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지난 30년동안 북한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 북한 연구 성과를 쌓아온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개교 30주년을 경하드립니다.

저는 북한의 산림녹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북한대학원대학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치산녹화(治山綠化) 10개년사업을 양묘와 조림과 연료 그리고 소득을 연결 추진함으로써 국토녹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이후 인공조림으로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협력으로 한반도의 녹화를 완성해야하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5년 전 2014년 3월, 국내 환경단체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녹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열고 그 자리에서 아시아녹화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시아녹화기구는 우리의 치산녹화 경험을 살리면서 북한 실정에 맞는 한반도 녹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북한 산림녹화 Green Korea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Key point가 있습니다.

첫째, 「림농복합(林農複合)」입니다. 농경지가 적은 북한의 비탈밭, 다락밭을 농업과 조림을 복합하는 방식으로 생태녹화하는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녹화계획은 북쪽에 전달되어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황해북도 사리원지역에 「림농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나무를 심고 누가 책임지고 육림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비탈밭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산지이용반 지역주민들이 나무를 심고 심은 나무가 성목이 될 때까지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지이용반,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시아녹화기구는 산지이용반 마을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텃밭용 소형 온실 등 농사용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둘째는 「묘목공급(苗木供給)」입니다. 적지적수(適地適樹)의 나무모(묘목)가 조림현지에 적시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10년 동안 황폐산지 168만ha에 63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묘목공급이 큰 과제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 1차 치산녹화사업 100만ha 조림에 약 30억 그루를 심었는데 그 두 배 이상의 묘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에는 208개 시군구마다 산림경영소가 있고 그 산하에 10ha내외의 양묘장이 있습니다. 이 양묘장시설을 현대화하여 북한이 강조하는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집약화를 위한」 양수·관수시설, 온실 양묘 기자재를 협력해야 합니다. 아시아녹화기구는 황해북도 사리원에 「림농복합시범단지와 함께 양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리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양묘장 30개소의 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북과 협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양묘장시설현대화의 현장 Model로 철원에 「통일양묘장」을 조성하고 용기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는 「연료대책(燃料對策)」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땔감 벌목을 막는 연료대책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 연료림을 조성했듯이 아까시아 땔나무림(연료림)을 조성하여 임산연료를 공급하고 연료전환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치산녹화사업의 연료림 조성 경험을 공유 활용하면서 구멍탄 보급,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협력 추진해야 합니다.

「림농복합조림」, 「양묘장 현대화」, 「연료대책」,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북한산림녹화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산림복원 10년 계획으로 63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녹화사업은 UN기후변화대응사업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녹화사업은 남북협력사업일 뿐만 아니라 UN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한 차원 높여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교 30주년을 맞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 국회의장
강 창 희

격 려 사

오는 11월이면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TV뉴스를 통해 장벽에 몰려든 수만, 수십만의 베를린 시민들이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내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날을 맞을 수 있을까 부럽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채 1년이 안 되어 독일은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의 독일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그리고 인류사회의 복지와 인권을 견인하는 중심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독일통일은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전과 45년에 걸친 분단의 질곡에서 일어나 통일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통일을 이룬 지 3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독일인들이 민족의 진정한 재통일을 위해 얼마나 힘든 노력을 벌여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독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그동안 투입되었고, 지금도 해마다 120조원 이상의 자금이 구동독 지역 경제부흥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간 경제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간 감정적 불화도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우울한 분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 엄청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통일을 이룬 동서 독일국민들이 화해와 번영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던 바로 그 무렵, 한반도에서는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26년의 긴 세월 동안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미북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북핵 동결론까지 대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북핵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사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 국민을 새로운 차원으로 크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또한 완벽하게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일 지구의 종말이 닥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위기 속에서도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은 더욱 힘 있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이 점에서 훌륭하게 선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모태(母胎)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과는 냉전구조 해체가 시작되고 우리나라가 동구권과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서던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올해로 30년, 북한대학원은 대결구도로서의 북한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루어야할 통일과 화합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을 연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명하신 석학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전문 인력을 배출해 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본격적인 북한연구의 길을 개척하신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님, 안호영 현 총장님을 비롯한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역대 총장님과 내외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통일과 번영의 길을 닦는 우리에게는 독일이라는 훌륭한 선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반도와 분단기 독일의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동서 독일은 장벽과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가운데서도 왕래와 서신, 전화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백만의 서독인들이 동독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보다는 적은 수였지만 동독인들의 서독 방문도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동서독은 이미 1970년대 초에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상설대표부를 열었습니다. 서독은 동독에 차관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의 선례를 충분히 연구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일을 통해 통일의 과업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주도면밀하게, 동시에 질풍처럼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통합된 국민,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고 계승되는 핵심정책, 정치지도자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역사적 혜안(慧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1970년 동독을 방문한 빌리 브란트 수상이 '빌리 브란트'를 외치며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동독시민들에게 차마 손을 마주 흔들어주지 못했던 소감을 토로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동포로서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나는 감동했지만 이 사람들의 운명을 고려해야 했다, 나는 본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숨을 돌렸다"

우리민족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독일민족 못지않은 동질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들을 냉정하게 연구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한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가 키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축적해 왔고 지금도 쌓아가고 있는 연구 성과들이 통일과 한반도 번영에 기여할 날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학생과 동문 여러분의 건승, 그리고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 통일부 장관

강 인 덕

격 려 사

먼저 북한대학원대학교 창건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간 북한 전문 연구자 양성에 기여한 높은 교육 공헌을 찬양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 누구보다 이 대학교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된 후 지난 40여년 간 수백 차례의 각 부문별 남북대화와 협상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원할 전문 인력의 부족함을 통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제2차 세계대전 종식으로 식민지에서 해방된 100여개의 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산업화를 성취한 대한민국의 긍지를 선양하기는커녕, 건국 과정의 역사와 정착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백방으로 왜곡·날조하며 북한 노동당의 대남적화노선인 「반미·민족해방 투쟁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론」으로 각색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우리 사회에 전파하며 반정부 반체제 투쟁 고양에 광분하는 주사파가 준동하고 있는데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후 세대의 남북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역대 정부는 이처럼 시급한 국가 과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탄스러운 것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냉전 종식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대화에 동원할 전문가 집단의 형성과 전후 세대의 이념교육을 전담할 지적 능력을 갖춘 교육인력을 양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념적 혼돈이 극심하던 시기 역대 정부가 효과적 이념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80년대에 이 엄중하고 무거운 교육사명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나선 민간대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재규 총장이 이끄는 경남대학교였습니다. 박 총장은 1989년 11월 대학교내 행정대학원에 북한학과를 신설하였고, 10년간의 교육경험을 거쳐 1997년 북한대학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2004년에는 서울 시내에 오늘의 북한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여 경남대학교에서 독립하였고 2007년에는 이 대학교의 재정을 전담할 학교법인 심연학원을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삼청동 고개 마루턱에 우뚝 솟은 교사(校舍) 통일관과 넓게 자리 잡은 강의실과 도서관, 그리고 강당은 북한연구자의 학문 연구의 요람입니다. 이미 이 대학교는 600여 명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출했습니다. 이들이야 말로 자유·민주·평화 통일을 주도할 선구자이며 향후 언제, 어디서, 어떤 부문, 어떤 성격의 남북대화와 협상에도 당국의 참가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집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이 다시 허용될 경우 이들은 그 기업의 직접 종사자로서 또는 밖에서의 자문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들은 국내 각급 각계 교육기관에서 국민의 올바른 대북관 함양의 교육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일부 관측자들이 예상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히 투입시켜 작전요원의 임무를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며 북한전문 인력 양성에 노심초사하시는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과 대학원생들의 원활한 교육환경 유지에 전력하시는 김선향 심연학원 이사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 대학교 교무를 총괄하는 안호영 총장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의 정진과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 경 서

격 려 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설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예견하여 후학을 양성하신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님과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교수님과 교직원들, 재학생과 졸업생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적십자사 식구 모두를 대표하여 이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직, 간접적으로 대한적십자사의 가족이 된 650만의 사람들 중에는 290만 헌혈가족과 340만 회원 및 후원자, 봉사원과 RCY, 직원 30만 명 등이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우리 대한적십자사와 같이 전쟁과 핵의 위협이 없는 평화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요.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엔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여 매년 7월 18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무기' 라는 유명한 선언으로 백인과의 화해를 이끌어낸 넬슨 만델라가 테어클레르크 전 백인대통령과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하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온 세계적인 지도자였습니다.

1969년 서독 제4대 수상으로 선출된 빌리 브란트는 '평화는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철학으로 동방정책을 선포합니다. 동독과의 화해와 협력을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프랑스와 영국의 반대에 부닥쳤지만 평화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브란트의 확고한 신념과 설득으로 마침내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는 서독인을 대표하여 폴란드 바르샤바 근교의 유태인의 공동묘소 앞에서 3분간 무릎을 꿇고 침묵함으로써 사죄를 구합니다. 노르웨이로 망명하여 나치에 저항했던 그가 히틀러를 대신 무릎을 꿇어 용서를 구한 모습이야말로 평화의 구체적 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독일은 지금까지도 매년 GDP의 일정 부분을 유태인의 복지에 할당하며 진정한 사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치의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이 지켜낸 그들의 훌륭한 민족성이자 정체성입니다.

나는 1967년부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이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독인의 48%는 이 사죄에 반대하였고 41%는 너무 잘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서독 내의 이 평가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있은 다음해 빌리브란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4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브란트와 만델라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처럼 역사를 역행하는 지역도 드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200년의 긴 세월동안 팽팽한 경쟁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후 양국 수상인 드골과 아데나워가 평화공동체를 합의하였고 지금은 초, 중, 고 공동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양국 대통령이 서로 껴안고 전쟁 없는 평화세계 창조에 힘을 합하기로 결의하기도 했지요.

유럽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미, 아세안 등지에서도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 안보공동체 등 여러 형태의 지역협력체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불신과 경쟁이 난무하며 국가 간 언어공격까지 일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동북아시아도 노력하면 평화공동체 건설이 가능하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럽연합을 함께 이끌어가는 프랑스와 독일처럼 남과 북도 인도주의 평화공동체 시대의 세계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졸업생들이 이미 곳곳에서 이러한 평화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30주년을 기념하여 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 30일 3국 정상의 판문점 회담 등 드디어 남북 대치국면 대신 평화가 안착되기 시작했습니다. 7,300만 배달민족의 염원인 핵이 없고 전쟁이 없으며 남북이 평화공존 시대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갑시다.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이를 위한 인재들을 만들어 낼 것임을 확신합니다. 내년 창립 115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적십자사도 동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제2대 원장
염 홍 철

회 고 사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와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경남대학교와의 인연을 제 인생을 결정짓고 크게 영향을 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박재규 총장님을 모시고 극동문제연구소를 창립하는데 참여하였고, 그 뒤 북한대학원 설립에도 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그 기간은 20대에서 출발하여 50대 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 그리고 지금의 북한대학원대학교와 제 젊음을 같이 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가 설립된 1972년은 대학에서도 북한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는 통일문제를 포함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연구가 있었지만 아마 북한문제만을 전문화하여 연구를 한 곳은 극동문제연구소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는 '북한'이라는 용어조차 금기시 되었으며 군이나 정부기관에서는 '북괴'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논문 몇 편 또는 단행본 몇 권을 낸다고 해도 학계의 이목을 끌 수 없었지만 극동문제연구소는 과감하게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하여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최하여 학계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1973년 4월 미국 워싱턴에 가서 주로 재미 동포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주변 강대국'이라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학계차원만이 아니라 '정치적'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였고, 1974년 1월에 국내 최초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이래 연례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북한문제는 물론이고 통일과 평화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등 4강의 정책과 세력관계를 폭넓게 분석하고 조명했습니다.

그 후 북한연구와 교육을 접목한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경남대 북한대학원(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을 개원하여 석사와 박사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학교를 떠나 정부에서 일을 하였는데, 다시 학교에 복귀한 것은 1998년이었고 그 다음 해에 박재규 원장님에 이어 제 2대 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사실 극동문제연구소에 비해 북한대학원과의 인연은 매우 짧아 회고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고위정책과정 개설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고위정책과정에는 관심 있는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과 학자들은 물론이고 통일 관련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 교육의 메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에 동참한 사람으로 큰 보람을 느꼈지요. 그 뒤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어 북한대학원에서는 2년 여 기간 동안 밖에 근무를 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제2대 총장
고 병 철

회 고 사

2019년 6월 30일 한국의 판문점에서 Reality Show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53년 정전 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회담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이것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또한 남북 간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기관의 원장과 소장이라는 인연을 가졌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8년 나의 첫번째 영어로 된 책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가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은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최초의 북한 전문 연구서였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정보기관들이 관심을 보여 여러 회의에 초대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81년 여름 재미학자 7명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1983년에 'Journey to North Korea'가 출판되었고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과도 친분을 맺게 되었습니다.

2002년 40년의 미국대학교의 교수직에서 은퇴한 후 서울 삼청동에 소재하는 경남대학교에 속한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을 맡아 2년, 2년 임기를 마치고 그 후 계속해서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원장직도 맡아 2년 더 재임하게 되었습니다. 소장 재임 시 '남북갈등: 진단 및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는데 그것이 '통일관' 개관 기념 학술회의기도 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극동문제연구소와 더불어 한국 최초로 북한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자들을 길러내는 한국 유일한 기관으로 그 중요함은 자명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지난 30년보다 한 층 더 한 발전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제3대 총장
고 현 욱

회 고 사

우선, 개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척박한 환경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북한 연구 및 교육의 토대를 이만큼 쌓았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설립자가 가진 불굴의 소명의식과 구성원의 끊임없는 헌신, 그리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 등이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위상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나는 이 대학의 총장을 1년 밖에 맡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경남대 교수의 신분을 유지한 채 총장을 겸직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실질적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의 3각공조체제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나와의 이 대학 인연은 몇 십년간 지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3년 덕수궁 옆에 있던 서울연구소에 처음 들어와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신분으로 경남대 교수직을 정년퇴임할 때까지 한 시도 '북한'이라 단어를 멀리해 본 적이 없다.

이처럼 북한대학원대학교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때로는 현장에서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무수한 감회가 교차됨은 당연하다. 총장 재임 1년 동안, 안으로는 교수들이 자율과 책임의 틀 속에서 한껏 연구하고 교육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돕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교수진들이 워낙 개성이 강했고 반면에 때로는 너무나 쉽게 현실 순응적이어서 협업과 창의적 연구의 장점이 아쉽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훌륭한 실적을 쌓고, 교육의 엄격한 잣대를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 이 대학의 명성을 이만큼 유지해온 비결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밖으로는, 북한연구·교육의 공동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 2011년 5월에는 중앙일보와 북한연구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해나가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실천사업을 중앙일보 부설 통일문화연구소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얼마나 많은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당시로는 주요 언론기관과의 첫 사업으로 통일이슈를 공론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배재대학교와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첫 사업으로 한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을 이 대학에 개설하였다. 중부권 중심지인 대전에서 이 과정이 추가됨으로써 이미 서울과 마산 본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일지도자 육성 프로젝트가 전국화되었다. 이어서 호남과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이 과정을 확대하여 전 세계적인 통일연구·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구상이었다.

아쉽게도 이러한 포부는 나의 중도하차로 1년 만에 접었지만, 설립자와 후임 총장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더욱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 틀림없다. 지나온 30년 동안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북한·통일의 연구·교육 메카로 자리 잡은 우리 대학에게 앞으로의 30년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고, 사학의 원천적 한계에 부딪치면서 우리 대학의 생명력은 숱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나친 기우인가?

우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재단과 설립자는 건학이념과 시대적 사명감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 사실, 열악한 사회적 교육환경과 정부의 무지원 상태에서 이만큼 용기 있게 대학에 투자하여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사학은 없다. 앞으로도 당장의 반대급부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긴 안목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대학의 생존 방식을 찾아야 한다.

교수와 학생들도 심기일전해야 한다. 학문의 길은 어찌 보면 나와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지적 훈련은 엄격하고 혹독하여야 하지만, 지적 오만과 독선은 없을수록 좋다. 최근 남북관계의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긴 호흡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학을 선택한 선구자적 소명의식, 그 이론적·실천적 접근에서 보여주는 균형감각과 지적 겸손, 그리고 마라톤 주자의 끈질김과 인내 - 이런 것들이 겸비될 때, 우리 북대인들은 진정한 북한 전문가가 될 것이다.

우리 대학이 가야 하는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니다. 평화와 통일의 길이 험난하고 더딘 것처럼, 대학은 단단한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빨리 자라서 크게 가지를 뻗어 멋진 그늘을 만드는 나무는 당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 속은 단단하지 못한 법이다. 이 나무는 성장하고 꽃피우는데 모든 걸 소모한 나머지 내실을 다질 여력이 없다. 이런 나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생명이 다하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만다. 분단의 한 가운데서, 통일의 힘든 과정에서, 통일 후의 어울림에서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단단한 나무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제4대 총장
최 완 규

회 고 사

금년이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월 흐름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학교 당국이 개교일 원년을 1989년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북한학과를 개설한 때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개설 초기부터 강의를 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거의 30년 세월을 북한대학원대학교와 더불어 보낸 셈입니다. 때로는 명칭이 운명을 결정할 때가 있다고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북한대학원대학교라는 명칭이 제 인생의 절반을 규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북한대학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인가 및 출범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숱한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교 30주년을 보는 소회(所懷)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개교 30주년을 제 마음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연구와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갖고 학교 발전에 진력해 오신 박재규 총장님과 김선향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를 떠난 지도 벌써 4년이 되었지만 늘 생각나는 여러 교수 분들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0여년 간 삼청동의 모든 분들께서 한 마음으로 쉼 없는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 덕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국내외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연구와 교육의 최고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동안 전 교직원들과 더불어 참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중에서는 아직도 대학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와 교육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현대북한연구」라는 학술지를 창간한 일입니다. 창간 당시 가장 중시했던 원칙은 북한 관련 순수 학술지를 지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현대북한연구」는 이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북한연구를 대표하는 등재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부설 연구소로 북한미시연구소(현재는 심연북한연구소)를 개소했던 당시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미 북한관련 중추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동일 캠퍼스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유사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명분과 실리 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곡절 끝에 개소한 북한미시연구소는 심연북한연구소로 확대 개편되면서 특정분야의 대표적 북한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SSK대형단계 연구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 밖에도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사업들은 조중접경지역답사라는 현장연구 프로그램과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해 온 일입니다. 1999년 여름부터 시작된 접경지역 답사여행은 지금도 많은 관심 속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속속 추진하고 있을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간접적인 현장연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은 2000년 9월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해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지도자과정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개설된 것입니다. 중앙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 후원으로 처음 개설된 지도자과정은 제가 은퇴하기까지 우리 사회 각 분야 1,000여명의 지도층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지금도 대학원이나 극동문제연구소의 각종 학술행사에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북한, 통일 분야의 network을 형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통일미래최고위과정으로 개편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람 있고 행복했던 경험은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대학을 떠나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더 이상 학생들과 자주 접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의 면면들을 보면 그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다양성 속의 독특함(전공이나 직업, 성향 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마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교수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지적 대화(intellectual chatting, 속칭 3교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배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모든 신입생 분들이 짧게 발표하는(5분 스피치)입학 소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상식을 뛰어넘어 새로움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확인하는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언급할 만큼 대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여곡절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높여 가면서 북한 인식에 대한 정론을 펴는 중심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원합니다. 그 길이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개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제5~6대 총장
송 민 순

회 고 사

그들의 눈빛에는 국토 분단이라는 비정상을 별 생각 없이 정상으로 간주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좀 다른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20대에서 70대까지 반세기를 넘는 세대차의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도서관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새겨진 내 기억이다. 그들은 북한의 실체는 어떤 것인가, 남과 북은 70년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가,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거대한 질문에서부터 양성평등 문제나 주택시장, 그리고 영화 제작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많은 현장 문제에까지 파고들고 있었다.

각자의 학부 전공을 마치고 다양한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던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에 눈을 뜨고 모여든 곳이 북한대학원대학교이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보통 사람들은 집으로 향하거나 여가 생활을 즐길 때 이들은 북한 연구의 요람 삼청동 캠퍼스로 향한다.

내가 국내외 이런 저런 행사에서 북대 총장 명함을 건넬 적이면 흔히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었다. "국립대학이냐?", "북한이 세운 대학이냐?" 질문의 배경을 거꾸로 물어 봤다. 하나는, 한국에서 북한 연구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책 교육 연구 기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남과 북이 교육 기관을 교환 설치할 정도로 서로 열려 있는가 하고 짐작했다는 것이었다.

두 질문 모두가 실상과는 다르지만 '상식'과 '희망'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학교법인 심연학원은 지난 30년에 걸쳐 정부가 해야 할 분야에서 과제를 개척하고 연구 발전시켜 왔다.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어려운 종합적 북한 연구의 메카로 성장했다. 앞으로 또 다른 30년이 가기 전에 두 번째 질문처럼 남과 북이 서로 열어놓고 사는 세상이 올 것으로 희망한다. 북대가 그 희망의 실현을 위해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될 것으로 믿는다.

북대가 설립된 1989년은 아직까지도 한반도의 미래를 옥죄고 있는 북한 핵 문제가 지상으로 나온 해이다. 나는 당시 이 문제를 담당하던 외교부 안보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이 보인 경악과 경아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그로부터 30년 한반도는 아직도 북한 핵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빙하에 덮여 있다. 표면에서 나마 녹는 듯 다시 얼고, 또 어는 듯 다시 녹기를 반복해왔다. 남북 간에 훈풍이 불면 북·미나 미·중 간에 한풍이 불고, 반대로 한반도 주변 환경이 녹으면 남북 사이가 얼어붙는 엇박자가 교차되어 왔다. 그때마다 우리는 희망에 부풀기도 탄식에 젖기도 했다.

'희망과 탄식', '열광과 체념'의 반복 속에서 남북관계의 실체는 진전되지 않는다. 북한 자체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구조를 현실적 시각에서 연구하고 그 바탕에서 남북 관계의 실체를 발전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위에 엉켜있는 남북과 동서의 얼개, 즉 서울-평양과 워싱턴-베이징 관계가 정렬될 때 한반도에 고착되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비핵-평화'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건너뛰어 '평화-비핵'이라는 우회로를 찾는 논쟁까지 등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핵을 가진 북한과는 공존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한반도 안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담론도 일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논쟁들이 우리 내부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갈라놓을 수도 있다. '열정(passion)과 냉정(dispassion)의 균형'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 거대한 국제 정치 구조의 문제들에서부터 남북한 주민 사이에 어떻게 마음의 통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세밀한 감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연구하는 과제가 북대의 앞길에 펼쳐있다. 여러 분야의 사회적 경험으로 지적 융합을 가능케 하는 학생 그룹,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갖춘 교수진, 그리고 안정적으로 학교의 살림을 챙기는 운영진이 삼박자가 되어 통일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내부 통합을 이끌어 갈 자산을 꾸준히 양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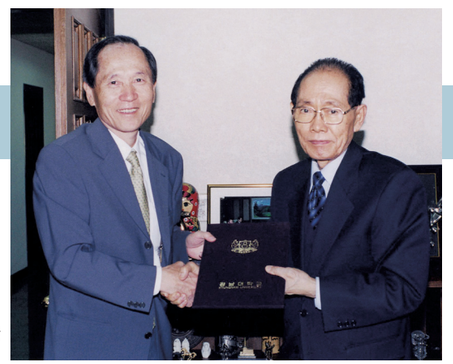
마침 북대는 내가 1960년대 서울로 유학 와서 기거하던 하숙집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총장 재직 시절 가끔 그 집을 둘러보며 반세기 전을 회상하곤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산이 맑고(山淸), 물이 맑아(水淸), 사람도 맑다(人淸)는 삼청동(三淸洞)의 정기는 그대로 인 것 같았다. 북대가 삼청의 정기를 온 몸으로 받아 이곳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살림 챙기는 모든 분들과 함께 통일은 물론 그 넘어 멀리까지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사진으로 본
북한대학원대학교의 30년

북한대학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
1998.5.28

금강산 관광 심포지엄
1999.11.11

1990's



1999.4.12
북한대학원 고위정책과정
고(故) 황장엽 선생 초청특강

1999.5.27
"격동 속의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국제학술회의

아시안퍼스펙티브 창간2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1.3.22

통일관 기공식

2002.10.25

극동문제연구소 30주년
기념 리셉션

2002.5.22

2000's

2004.06.15

통일관 개관

북한대학원 초빙교수 연찬회

2006.1.9

외교통상부와 MOU 체결식

2006.10.24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특별강연

2007.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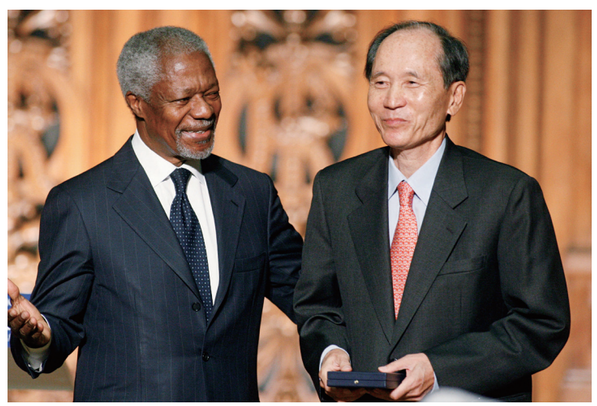
남북정상회담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7.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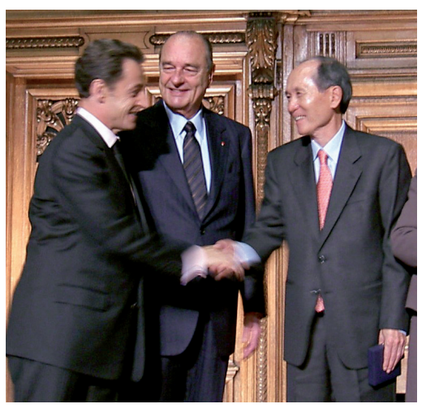
2000's

2009.11.6

시라크재단
분쟁방지 특별상 수상



▲ 2009. 11. 6. 시라크재단 분쟁방지특별상 시상식,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특별상 수여



▲ 특별상 수상을 축하하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시라크 전 대통령

▲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걸린 분쟁방지 특별상 수상 기념 포스터

'동북아 평화 증진과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학술회의

2013.11.19

북한미시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회의

2012.11.6

2010's

▲ 2015 한반도국제포럼 미국회의

'북한의 이동, 북한 사람의 이주'
국제학술회의

2016.12.8

멕시코 이메진 TV와 한-멕시코 교육·경제 협력 인터뷰하는
▼ 박재규 경남대 총장과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2019.3

한-멕시코 대학 간 교류 통해
양국관계 발전

2018

한반도국제포럼

연 혁

1989

1989.11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설립인가

1997.10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설립인가

1998.03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개원
입학정원(석사과정 30명) 초대
박재규 원장 취임

1998.09
「고위정책과정」 개설

1999.09
제2대 염홍철 원장 취임

1999.11
입학정원(석사과정 40명) 증원

2000.04
제3대 서대숙 원장 취임

2000.05
「사이버 북한강좌」 개설

2000.07
북한 전문대학원으로 승격인가
입학정원(석사과정 50명, 박사과정 10명)

2000.09
「고위정책과정」을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으로 개편

2000.12
「사이버 통일교육 연수프로그램」 개설

2001.03
북한 전문대학원으로 승격개원

2001.09
제4대 박재규 원장 취임
「통일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위원장: 손주환)

2002.10
「통일관」 기공식

2002.12
국군기무사령부와 「교육·연구협력 협정」 체결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각각
「상호협력의향서」 교환

2004.06
「통일관」 개관

2004.11
북한대학원대학교 설립인가

2005.02
경남대학교와 「교류협정 이행을 위한 운영협약」 체결
한국수출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2005

2005.03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초대 박재규 총장 취임
입학정원(석사과정 50명, 박사과정 10명)

2005.06
연변과학기술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05.07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와
「남북 IT부문 교류·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협약」 체결

2005.10
산학협력단 법인 설립

2005.11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2006.03
입학정원 조정(석사과정 45명, 박사과정 15명)

2006.10
외교통상부와 「외교겸임교수 설치와
운용에 관한 관학 협력」 체결

2007.04
학교법인 심연학원 창립총회

2007.0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협력연구소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2007.07
농협중앙회와 「산학협력협정」 체결

2007.08
학교법인 심연학원 설립인가(초대 이사장 이대순)

2007.11
학교법인 한마학원과 학교법인 심연학원 간의
「교류협정 및 운영협약」 체결

2008.06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국가연구업적 통합정보 연계를 위한 협정」 체결

2008.09
대만정치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2009.03
박재규 명예총장 취임, 제2대 고병철 총장 취임

2009.06
국회사무처와 「교육연구협정」 체결

2009.09
입학정원 조정(석사과정 40명, 박사과정 20명)

2009.11
육군본부와 「학·군제휴협약」 체결

2010.04
학교법인 심연학원 제2대 김선향 이사장 취임

2010.11
국회도서관과 「교류협정」 체결

2010

2011

2011.03
제3대 고현욱 총장 취임

2011.05
중앙일보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2011.09
배재대학교와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2012.03
제4대 최완규 총장 취임
북한미시연구소 설립

2014.05
북한미시연구소와 중국 정법대학 조선반도연구중심
「교육연구협정」 체결

2014.06
북한미시연구소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육연구협정」 체결

2015.03
제5대 송민순 총장 취임

2015.05
연변대학 국제연구생학원과 「교환학생 협약」 체결

2016.03
「북한미시연구소」를 「심연북한연구소」로 개편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을
「통일미래최고위과정」으로 개편

2016.04
(사)IPMA Korea와 Project Management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6.06
심연북한연구소와 통일부 교류협력국
「업무협약」 체결

2017.03
제6대 송민순 총장 취임

2017.10
심연북한연구소와 일본 릿쿄대학
「학술교류협력」 체결

2018.03
심연북한연구소와 대만 국립교통대학
「교육연구협정」 체결

2018.09
제7대 안호영 총장 취임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와
「교육연구협정」 체결

2019.06
북한디지털자료센터와 중국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교류협정서」 체결

2019

북한대학원대학교
30년의 개요

소 명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체계적인 북한·통일연구와 교육을 선도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에 대비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민족 번영과 국가 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뜻을 이루려는 노력은 1972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연구활동을 통해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증진하고자 설립된 때부터 시작되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북한·통일·평화·안보 연구를 위한 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1970년대에 사회주의권 국가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북한 연구를 개척하고 주도하였다. 이어 1989년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과가 설립되고 1997년에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으로 확대 개편되며 북한·통일연구와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경남대 행정대학원과 북한대학원의 교육 경험의 토대 위에서 2004년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설립되고 2005년 개교하였다.

2007년 학교법인 심연학원의 설립과 함께 독자적인 북한·통일분야 교육·연구기관으로 도약한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대학특성화에 대한 요구와 교육시장 개방에 맞서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과 명성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30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고 있다.

2007.11.19
2007 남북정상회담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5.07
한국수출입은행
공동 국제심포지엄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통일 연구 및 실무 전문 인력의 양성, 북한학 발전을 위한 허브(Hub)의 구축, 통일에 대비한 사회교육체계의 수립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북한·통일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에 대비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민족번영과 국가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난 30년을 노력해 온 결과 북한·통일 분야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통일 분야 연구와 교육의 세계적 중심으로 더욱 발돋움하기 위하여 정진할 것이다.

2009.09.21
제8차 북한대학원대학교-우드로윌슨센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 국제포럼

2012.11.06
북한미시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회의

2008.02.01
북한대학원대학교-주한캐나다대사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2018.09.17
한스 모드로 전 동독총리 강연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심연북한연구소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소-대학원의 연계와 함께 전공과정 운영, 교과운영,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의 유기적인 운영체계 안에서 북한·통일 분야의 정보와 자료의 수집, 생산, 제공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학문적 성과로 이어져 관료, 정책 전문가, 학자, 기업인, 사회단체 등 북한·통일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인적, 물적, 정보 교류의 중심이 될 것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연구와 실무가 균형을 갖춘 교육을 통해 학문적으로 우수한 전문 연구자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실무전무가의 양성을 추구하며 졸업생들이 대학 북한관련 학과의 교수, 북한관련 연구소의 연구자, 대북투자 기업의 북한전문가, 정부기관의 북한전문가, 각종사회단체의 북한전문가, 국내외 NGO와 국제기구의 북한관련 컨설턴트로 활약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연구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변 천

북한학 발전과 북한대학원대학교

2019년 개교 30주년을 맞이한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그 시원(始原)을 찾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과를 만날 수 있다. 경남대학교는, 1972년 '데탕트(détente)'의 훈풍이 한반도에 스며들기 시작한 시점에 맞추어 극동문제연구소를 개소한 것처럼, 1989년 냉전을 상징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시점에 맞추어 행정대학원에 북한학과를 개설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북한학을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막을 올린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소련, 중국 및 동구권 등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배경으로 남북대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와 사회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목말라 있었던 순간이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회담이 시동을 걸고 있었던 1998년 경남대학교는, 10년에 걸친 행정대학원 북한학과의 성공적 운용을 모태로 하여, 한국 최초의 북한연구 전문대학원으로서 북한대학원을 삼청동에 개원했다. 그 동안 극동문제연구소가 이룩한 연구와 자료,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교육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하나의 결실을 보았다. 북한대학원의 교육 기능과 극동문제연구소의 연구 기능이 상호보완하는 효과를 매개로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 및 교육 서비스의 발신지로 삼청동을 자리매김하는 순간이었다. 북한 핵문제 관련 6자 회담이 9.19 공동성명을 도출한 2005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은, 수년 간의 교육과정 혁신 및 조직 발전을 계기로, 한국 최초의 북한연구 전문대학원대학교인 북한대학원대학교를 개교하여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신생 학과에서 출발하여 신설 전문대학원으로 성장하고 결국 한국 최초의 북한연구 전문대학원대학교로 독립하는 제도적 발전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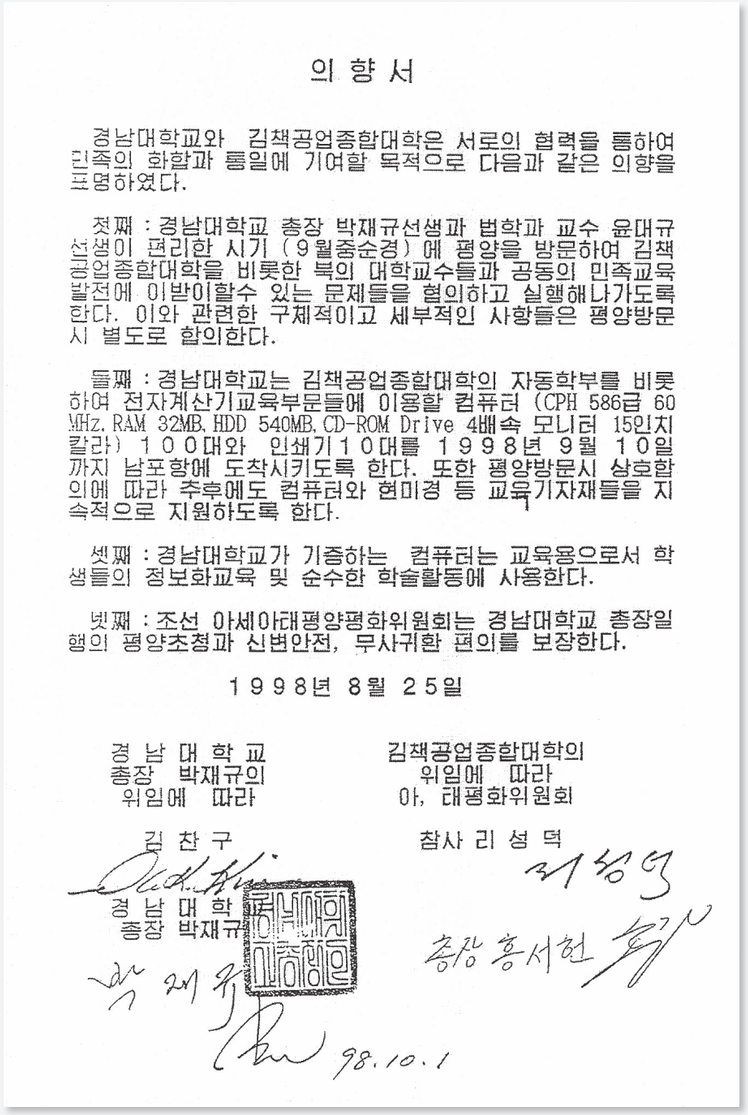
1998.05.28
북한대학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4.06.15
통일관 개관 기념식

글로컬(Glocal) 네트워크와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북한학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과정이었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을 개원한 1998년 초대 박재규 원장은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김책공업대학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해 교류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1998.09.26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술교류



의 향 서

경남대학교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서로의 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향을 표명하였다.

첫째 :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규선생과 법학과 교수 윤대규 선생이 편리한 시기 (9월중순경) 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북의 대학교수들과 공동의 민족교육 발전에 이받이할수 있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실행해나가도록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평양방문시 별도로 합의한다.

둘째 : 경남대학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자동학부를 비롯하여 전자계산기교육부문들에 이용할 컴퓨터 (CPU 586급 60 MHz, RAM 32MB, HDD 540MB, CD-ROM Drive 4배속 모니터 15인치 칼라) １００대와 인쇄기１０대를 １９９８년 ９월 １０일까지 남포항에 도착시키도록 한다. 또한 평양방문시 상호합의에 따라 추후에도 컴퓨터와 현미경 등 교육기자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 경남대학교가 기증하는 컴퓨터는 교육용으로서 학생들의 정보화교육 및 순수한 학술활동에 사용한다.

넷째 : 조선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경남대학교 총장일행의 평양초청과 신변안전, 무사귀환 편의를 보장한다.

１９９８년 ８월 ２５일

경 남 대 학 교
총장 박재규의
위임에 따라
김 찬 구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위임에 따라
아, 태평화위원회
참사 리 성 덕

경 남 대 학 교
총장 박재규

총장 홍서현

98.10.1

2004년에는 경남대학교 통일관 개관 행사 참석 등을 위해 북한의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원동연 아태평화위원회 실장과 함께 삼청동을 방문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평화통일로 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국내 및 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폭넓게 생성되는 계기로 기능했다.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축사

통일관 건립기 앞에서 리종혁 부위원장과 함께

리종혁 부위원장,
원동연 실장과 환담

국내에서는 2002년 국군기무사령부와 '교육연구협력 협정'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상호협력의향서'를 각각 체결한 것을 기점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대한주택공사, 외교통상부, 농협중앙회,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국회사무처, 육군본부, 국회도서관, 중앙일보, 배재대학교, (사)IPMA Korea, 통일부 국제협력국 등의 순으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외로는 2005년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대만 정치대학교,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중국 정법대학 조선반도연구중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변대학 국제연구생학원, 일본 릿쿄대학, 대만 국립교통대학,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와 다양한 형태의 교육연구관련 협정을 맺었다. 지난 30년 동안 구축한 조직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이론 개발 및 현장 경험을 종합적으로 접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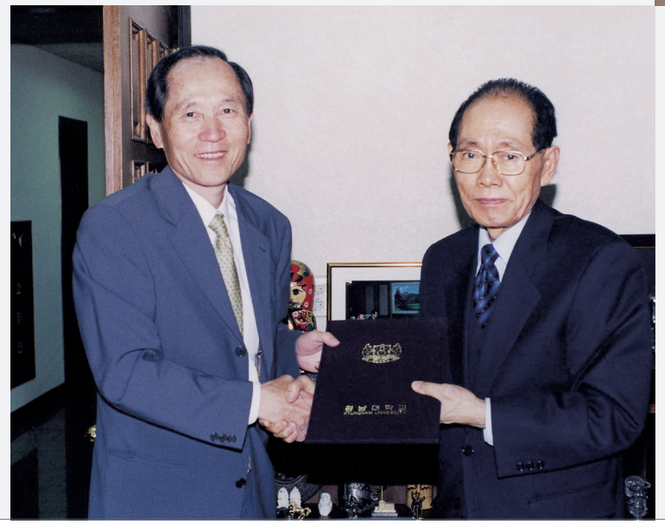
2006.10.24
외교통상부 협력 체결식

2009.06.30
국회사무처 협정 체결식

2016.06.02
통일부 교류협력국 협약 체결식

남북한의 정치리더십과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전개했고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1999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고위정책과정에서는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를 초빙하여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 리더십의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황장엽 전 비서는 자신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북한 권력 체제의 작동 원리 및 파워 엘리트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상술했다.



1999.04.12
고(故) 황장엽 선생 초청특강

2007년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대전환의 시대'를 주제로 특강했다.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이한동 국무총리, 장상 전 총장 등 남북관계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정계인사들이 북한대학원대학교 학생 및 동문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강을 경청했다.

2007.11.27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특별강연

2009년 박재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설립자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개원을 통해 북한 및 한반도 통일 관련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라크재단이 수여하는 분쟁방지 특별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지난 30년의 성과는 남북대화를 현장에서 주도한 정치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명성 있는 국제기관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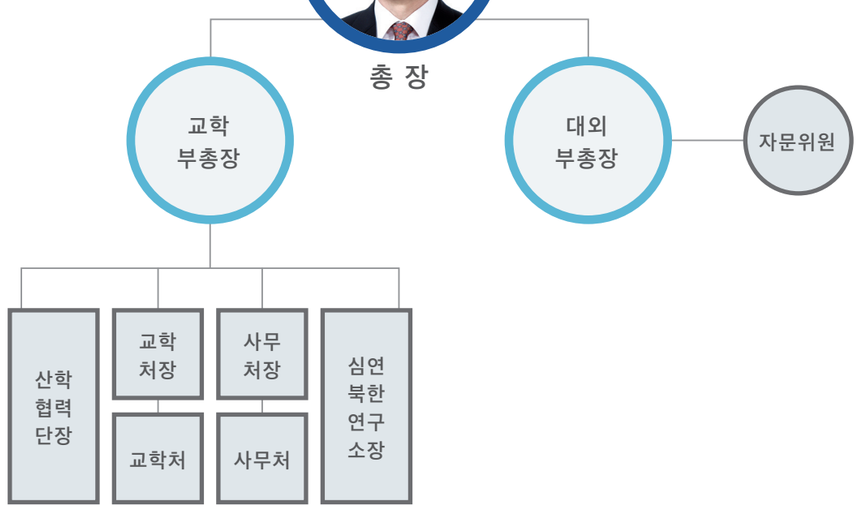
2009.11.06
시라크재단 분쟁방지 특별상
수상 소감 연설

수상자들과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SARKOZY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북한대학원대학교
30년의 활동

조 직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산학협력단, 교학처, 사무처, 그리고 심연북한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 연구의 유기적인 연결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 학자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자문위원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대 총장

구 분	성 명	기 간	경 력
제1대	**박재규**	2005.03-2009.02	1999-2001 통일부 장관 2003-현 재 경남대학교 총장
제2대	**고병철**	2009.03-2011.02	1963-2002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정치학과 교수 2002-200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제3대	**고현욱**	2011.03-2012.02	1988-2006 경남대학교 기획실장, 경상대학장, 대학원장, 학사부총장 2007-2008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제4대	**최완규**	2012.03-2014.02	2005-2007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원장 2004-2005 북한연구학회 회장
제5~6대	**송민순**	2015.03-2017.05	2006-2008 외교통상부 장관 2008-2012 제18대 국회의원
제7대	**안호영**	2018.09-현재	2012-2013 외교통상부 제1차관 2013-2017 제24대 주 미국 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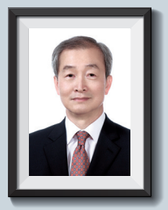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6대


제7대

교수진

전임교원

류길재	고려대 정치학 박사 | 북한정치, 비교정치
구갑우	서울대 정치학 박사 | 평화연구, 국제정치경제
이우영	연세대 사회학 박사 | 북한사회문화
양문수	도쿄대(東京大) 경제학 박사 | 북한경제
양무진	경남대 정치학 박사 | 북한외교, 남북관계
신종대	서강대 정치학 박사 | 남북관계, 비교정치
박정민	Far Eastern National Univ. 경제학 박사 | 북러관계, 국제경제
김성경	Univ. of Essex 사회학 박사 | 북한사회문화
김 정	Yale Univ. 정치학 박사 | 비교정치체제, 비교정치경제
유영수	Binghamton Univ. 정치학 박사 | 국제정치, 국제안보

류길재

구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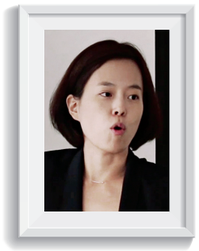
이우영

양문수

양무진

신종대

박정민


김성경

김 정

유영수

협력대학 전임교원

이수훈	Johns Hopkins Univ. 사회학 박사 | 국제정치경제
박후건	Univ. of California, Riverside 경제학 박사 | 북한경제
김근식	서울대 정치학 박사 | 북한정치, 통일정책
박정진	북한대학원대 북한학 박사 | 정치통일
딘울렛	북한대학원대 북한학 박사 | 국제관계

겸임교원

정치통일전공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군사안보전공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홍우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 IT전공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박성하	(주)투윈스컴 대표이사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원장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회문화언론전공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철	한국방송공사 연구위원
홍 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주화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교육전공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장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행정전공

권은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석좌교수

강창희	전 국회의장
고 건	전 국무총리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봉두완	전 국회의원
이케다 다이사쿠	SGI 회장

협력대학 초빙석좌교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
선준영	전 UN 대사
송영선	전 국회의원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
하선호	(주)영광사 대표이사

초빙교수(국내)

김고중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회장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김필주	평양과학기술대 농업생명대학 학장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남찬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문두식	한국군사학회 회장
박상권	평화자동차총회사 명예이사장
손주환	전 공보처 장관
안홍준	전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이재술	전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임학규(영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황진하	전 국회의원

초빙교수(국외)

고병철	미국, 일리노이대 명예교수
김영진	미국, 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
이만우	미국, 전 밀러스빌주립대 교수
이채진	미국, 클레어몬트 맥케나대 명예교수
Carla P. Freeman	미국, 존스홉킨스대 SAIS 외교정책연구소 소장
Christian F. Ostermann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공공정책·역사분과 소장
David C. Kang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
David Steinberg	미국, 조지타운대 명예교수
Donald P. Gregg	미국, 전 주한 대사
Evans J. R. Revere	미국,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그룹 수석국장
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Melvin Gurtov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명예교수
Peter Hayes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소장
Robert Gallucci	미국, 전 국무부 차관보
Samuel S. Kim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
松原孝俊	일본,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센터장
淺羽祐樹	일본, 니가타현립대 교수
武貞秀士	일본, 다쿠쇼쿠대 특임교수
鐸木昌之	일본, 쇼비학원대 교수
伊豆見元	일본, 도쿄국제대 교수
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寺田輝介	일본, 전 주한 대사
李鍾元	일본, 와세다대 교수
朴鍵一	중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중심 주임
石源華	중국, 푸단대 교수
丁原洪	중국, 개혁개방논단 고위자문위원
趙虎吉	중국, 전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Alexander Vorontso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장
Evgeny Afanasiev	러시아, 주 일본 대사
Michael G. Nossov	러시아, 미·캐나다연구소 부소장
Vladimir Yakubovsky	러시아,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Rüdiger Frank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교수

교 육

학위과정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통일 분야의 전문대학원으로서 남북 교류, 협력 및 통합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구 및 실무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에 특화된 석사학위과정와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문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 교육과 실무를 준비하고 전문화하는 교육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균형잡힌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연구자는 실무와 조화된 교육을 제공 받고 실무 전문가는 학문의 기초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학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통일 분야 전문가 양성에 힘쓰며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입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경남대 행정대학원 북한학과에서 북한학전공으로 15명의 석사과정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점차 입학정원을 증원하였으며, 2000년에는 전문대학원으로 승격되면서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에는 한 해 석사과정 40명, 박사과정 20명의 입학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학정원 변천

구 분	석사(명)	박사(명)
1989년 11월 경남대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설립	15	-
1997년 10월 경남대 북한대학원 설립인가	30	-
1999년 11월 입학정원 증원	40	-
2000년 07월 전문대학원으로 승격인가	50	10
2005년 03월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50	10
2006년 03월 입학정원 조정	45	15
2009년 09월 입학정원 조정	40	20

전공 및 교과목 소개

1989년 경남대 행정대학원 북한학과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북한학 단일 전공으로 시작하였으나, 북한학의 성장과 함께 여러 차례의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전공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세분화되었다. 현재는 정치통일, 군사안보, 경제IT, 사회문화언론, 통일교육, 법행정 총 6개의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전공과정은 석·박사 기초과목, 석사 심화과목, 석사 응용과목, 박사 심화과목, 박사 응용과목, 개별자유과목의 단계로 나누어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세부전공 변천

구 분	세부전공
1989년 경남대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설립	북한학
1997년 경남대 북한대학원 설립인가	정치행정, 경제협력, 사회개발, 통일정책
1998년	정치통일, 군사안보, 경제협력, 사회개발
2000년 전문대학원 승격인가	정치외교, 법행정, 군사안보, 통일정책, 경제·경제협력, 정보통신, 국토환경, 사회복지, 통일교육, 방송언론, 문화예술
2001년	정치통일, 군사안보, 경제, 정보통신, 사회, 통일교육, 문화언론
2005년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정치통일, 군사안보, 경제IT, 사회문화언론, 통일교육
2009년 - 현재	정치통일, 군사안보, 경제IT, 사회문화언론, 통일교육, 법행정

정치통일전공

북한의 정치이념과 정치구조, 대외정책과 외교관계, 남북한 통일문제를 다루어 북한체제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한반도 통일과정에 따르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주요교과목]

북한정치론	국제정치경제	북한헌법과통치구조	국제정치론
남북한관계론	북한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북한선전선동연구
조선로동당연구	북한외교론	한반도평화세미나	남북한통합세미나
북한과동북아의지경학적연구	한반도통일외교세미나	동북아지역체제론	한반도국제냉전사연구
김일성김정일연구	남북한비교정치론	북한엘리트연구	북한행정제도론
남북교류프로젝트연구	북한민족주의의정치경제	남북통일정책비교연구	강대국외교정책과한반도
통일한국의정치제도	분단체제와국내정치	사회주의체제전환연구	북중관계세미나
한반도역사정치론	북한협상전략연구	분단국통합사례연구	개혁·개방비교사례연구

법행정전공

북한의 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통치구조와 그 안에서의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형식적인 법과 제도를 넘어 현실로 작동하는 법과 행정의 현실에 주목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한다.

[주요교과목]

북한법개론	북한의국가기구론	북한인권과법	한반도평화체제와법
북한의경제개방법제	북한의부동산법제와남북통일	남북교류협력법제	남북한분쟁사례연구
남북한통합법제	북한법과법사회학	남북통일과과거청산	북한의외국인투자법제연구
남북관계와국제법	남북경협과법제도	북한의부동산법제와남북통일	국가정보론
남북교류협력판례세미나			

군사안보전공

정전체제 및 한반도 안보환경, 남북한의 안보·군사정책,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국제관계이론 및 전쟁연구, 정보화 시대의 남북한 군사 등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한의 대치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교과목]

군사론	북한군사론	한국전쟁연구	동북아국제관계론
전쟁과평화연구	북한군사원전연구	체제전환과군대	북한의당정군관계연구
동맹과다자안보론	비교군사론	남북한안보정책연구	국제관계와한반도안보
군사전략론	군축및군비통제세미나	정보화시대남북한군사특강	국가정보론
군사혁신:역사와미래	대북정책세미나	핵의국제정치세미나	북한외교안보정책세미나
남북한군사특강	군사와경제세미나		

경제IT전공

북한의 경제체제와 관리체계, 경제정책,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북한의 무역 및 대외개방 문제, 자원, 환경, 국토 개발 및 인프라 구축현황 등을 연구함으로써 북한 경제 전반을 이해하여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특히 IT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남북한 과학기술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교과목]

북한경제론	국제정치경제	북한과학기술정책론	인터넷과북한
북한사회간접자본론	한반도경제	북한대외경제론	북한경제시장화연구
북한정보통신정책과산업연구	북한정보화론	북한과학기술의역사	개발경제론
통계분석에기초한북한경제연구	원전을통해본북한경제개발사	남북경협과경제통합	북한과동북아의지경학적연구
북한경제관리론	동아시아경제개발론	북한경제특구개발론	북한개발지원론
경제통합론	사회주의비교경제론	사회주의경제세미나	북한경제세미나
이행경제연구	북한산업론	남북한정보통신교류협력연구	정보시대와남북한사회론
SNS시대의북한IT전략연구	중국경제개혁개방	독일의경제통합	남북교류협력판례세미나
북한과국제경제	북한국토개발론	남북경협실무세미나	

사회문화언론전공

북한 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며, 향후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실무적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북한의 문화, 예술 일반과 방송·언론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언론 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통해 남북한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주요교과목]

북한사회론	북한문화론	북한언론연구	북한사회변동론
북한문학연구	사회주의언론연구	북한의가족과여성	남북한문화비교론
남북한문화비교론	남북한사회문화교류와통합	북한이탈주민대책연구	북한사회특강
북한연구와텍스트분석	북한도시연구	북한의마음과정동	북한영화론
북한의일상문화	문화이론과방법론	대북지원과북한사회	북한사회정책론
북한문화제도와산업	남북언론비교연구	북한소설과북한주민의마음	북한과이주
북한종교와남북종교교류연구	GLOBALIZATION과북한	비교사회주의사회론	북한사회문제론
북한공연예술론	북한사회와인권	남북통일과언론	

통일교육전공

분단체제를 재생산해 온 의식과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시민의 능력과 그 발달 방법을 탐구하여 이론적 안목과 실천적 능력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담당할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교과목]

통일교육입문	북한교육론	현장연구방법론	통일교육의이론과실제
남북한분단교육체제비교연구	평화교육세미나	한반도통일외교세미나	남북한학교교육과정비교연구
통일교육프로그램개발	NGO와사회통일교육	북한과이주	분단국의통일교육과사회통합
남북한교육통합론	북한의교육사회인간형성	통일교육방법론및자료개발	

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배출한 학위논문들이 북한학 연구에 큰 자산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북한원전을 주로 연구하여 원전으로 볼 수 있는 통치구조, 법, 현대사, 사상, 문학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이 다수였다. 또한 탈냉전기 체제전환국가들의 경험을 연구하여 비교의 관점에서 북한을 전망하는 학위논문도 초기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남북 교류·협력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으로 북한의 법제, 정책, 문화 등의 분야로 논문의 주제가 확대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로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 경제와 사회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학위논문에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렇게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박사학위논문

연 번	이 름	전 공	논문제목	학위수여년
1	김준철	정치통일	한국인의 대북한 인식에 관한 연구	2007.02
2	이관세	정치통일	북한의 현지지도와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	2007.02
3	한헌동	정치통일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구조에 관한 연구:1990-2005	2007.02
4	김광수	군사안보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2007.08
5	안정식	군사안보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의 갈등과 협력: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 한미동맹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2007.08
6	이계란	정치통일	脫冷戰期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에 관한 硏究	2007.08
7	신석호	경제 IT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	2008.02
8	이승열	정치통일	북한 '수령체제'의 변화와 '수령승계방식'의 한계에 관한 연구	2009.02
9	안민자	사 회	대북방송의 정체성 변화와 프로그램 편성 연구	2009.02
10	박문우	경제 IT	북한식 정보화에 관한 연구: 정보격차 문제를 중심으로	2009.08
11	KEVIN SHEPARD	정치통일	North Korea's Forign Policy Decision-making and Bounded Rationality	2009.08
12	이명우	정치통일	북한 핵정책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구상	2009.08
13	김영주	정치통일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담론 연구	2010.02
14	김동진	정치통일	한반도 평화구축과 기독교 에큐메디칼 연구, 1945-1992	2010.08
15	하정열	정치통일	상호주의 시각에서 본 남북관계 분석	2010.08
16	김순수	군사안보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군사외교	2010.08
17	박상수	정치통일	탈 냉전기 북한의 대남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정체성의 정치와 권력정치의 상호작용	2010.08
18	심영삼	군사안보	김정일 정권의 군사기구 및 정책수립, 집행과정	2010.08
19	김태우	정치통일	남북한의 통일정책 전개과정 연구, 1954~61년	2011.02
20	박혜숙	통일교육	사회주의체제형성기 북한의 교원에 관한 연구 1945-1950	2011.02
21	딘올렛	정치통일	북한과 미국의 관계와 북한의 핵위기: 코헤비탄트 다자주의 기구	2011.08
22	안성필	정치통일	북한 민(民)의 변천-집권 세력의 기획을 중심으로	2011.08
23	홍성보	군사안보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과정(1945-1970):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2011.08
24	이주철	문화언론	조선중앙TV연구-2000년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11.08
25	박정진	정치통일	분단갈등'연구: 독일, 북아일랜드, 한반도 갈등관리 유형 비교	2012.02
26	손용우	군사안보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생존과 안보를 위한 핵무장 추구	2012.02

연 번	이 름	전 공	논문제목	학위수여년
27	오항균	정치통일	金正日時代 北韓 軍事指軍體系 硏究	2012.02
28	이한희	경제 IT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FDI)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2.02
29	천현식	사회문화언론	북한 가극의 특성과 변화: 혁명가극에서 민족가극으로	2012.02
30	권은민	법행정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시기별 변화와 전망	2012.02
31	임춘희	통일교육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청소년 정치교육	2012.02
32	김선진	정치통일	김영삼 정부 대북정책과 국내정치의 상관성 연구: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2012.08
33	김진숙	사회문화언론	북한 '약학부문사업'과 보건의료 연구	2012.08
34	양훈도	사회문화언론	북한 동화의 스토리텔링 연구	2012.08
35	왕선택	정치통일	북한과 미국의 '핵외교' 추세 분석, 1992-2011: 국내정치 주기와 '예정된 비합리성' 개념을 중심으로	2012.08
36	곽인수	정치통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2013.02
37	김동엽	군사안보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 국가, 군 관계를 중심으로	2013.02
38	문대근	정치통일	탈냉전기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연구	2013.02
39	민경태	경제 IT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2013.02
40	이신재	정치통일	푸에블로호 사건이 북한의 대미 인식과 협상 전략에 미친 영향	2013.02
41	이철우	사회문화언론	북한이탈중년남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2013.02
42	이혜경	정치통일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 연구	2013.02
43	정재호	정치통일	체제 붕괴기 동독군의 무력 불개입 요인 연구	2013.02
44	김신희	통일교육	탈북청소년의 시민성(市民性)연구	2013.02
45	장용훈	정치통일	남북 정상회담과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	2013.02
46	김보미	군사안보	북한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	2013.08
47	김옥자	통일교육	만경대혁명학원 연구	2013.08
48	노혜경	사회문화언론	북한에서 국가와 시인의 관계 연구:'서정적주인공'을 중심으로	2013.08
49	도지인	정치통일	중소분쟁에서 미국요인과 북한의 위기동원화, 1962-1968	2013.08
50	박유현	정치통일	북한의 조세정치와 세금제도의 폐지, 1945-1974	2013.08
51	이주태	정치통일	김정일 시기 북한의 위기조성전략 연구: 비대칭전력 및 군사 도발 사례 분석	2013.08
52	한상용	군사안보	북한군 병영문화 연구: 선군시대를 중심으로	2013.08
53	김천식	정치통일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2014.02
54	이경직	사회문화언론	김일성?김정일 '수령형상' 과정에서 선전선동의 역할	2014.02

연 번	이 름	전 공	논문제목	학위수여년
55	이정곤	군사안보	중국의 한국전쟁 수행 연구: 군사전략과 전역을 중심으로	2014.02
56	임방순	정치통일	중국의 대북한 원조에 관한 연구: 중-소 관계변화의 영향	2014.02
57	정길현	군사안보	미국의 한국전쟁 수행 연구: 극동군사령부 전구작전을 중심으로	2014.02
58	정용민	통일교육	통일교육체계 비판	2014.02
59	황진훈	경제IT	북한과 중국의 투자성장 메커니즘 비교 연구: 재정,금융,대외경제를 중심으로	2014.02
60	김중태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과 적응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2014.02
61	곽채원	정치통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연구: 당적 지도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2014.08
62	김창순	정치통일	남북한 정부수립 과정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활동과 정치적 배제연구	2014.08
63	박천조	경제IT	개성공단 노사관계 연구	2014.08
64	장성진	군사안보	북한군 군사교리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연구, 1945~1950	2014.08
65	장철운	군사안보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경쟁 연구: 결정요인 및 전력을 중심으로	2014.08
66	장환빈	경제IT	개성공업지구와 소주공업원구 비교 연구	2014.08
67	권금상	사회문화언론	권가권력, 주체, 섹슈얼리티: 국가 건설기로부터 고난의 행군 이후까지 북한 섹슈얼리티의 (재)구성	2015.02
68	김성주	군사안보	북한 '군사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2015.02
69	김승	사회문화언론	북한 기록영화의 영상재현 특성연구	2015.02
70	김한규	경제IT	북한 외래관광 연구	2015.02
71	박시영	군사안보	1960~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연구: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	2015.02
72	신봉길	정치통일	한중일 3국협력의 제도화 연구	2015.02
73	이혜옥	사회문화언론	대북 식량원조 레짐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2015.02
74	강영실	경제IT	북한의 산업혁신체제에 관한 연구: 철강 및 공작기계산업 중심으로	2015.08
75	김기헌	경제IT	북한 '화폐경제'의 원형과 붕괴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2015.08
76	배제이	통일교육	북한 영어 교육 연구: 2000년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5.08
77	손영조	법행정	북한 예심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2015.08
78	손진우	정치통일	북방정책에 관한 연구: 기원·모색·정착 - 6.23선언에서 7.7선언까지	2015.08
79	조현성	사회문화언론	북한 주민의 문화예술 수용 태도: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를 중심으로	2015.08
80	최윤철	군사안보	한국전쟁 정전협상 과정의 북·중·소 협력과 갈등	2015.08
81	최진업	정치통일	김정일 시대 북한체제의 '제도적 퇴락'에 관한 연구	2015.08
82	곽명일	사회문화언론	북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 연구	2016.02

연 번	이 름	전 공	논문제목	학위수여년
83	김민욱	법행정	미국 경제제재관련법제 연구: 이란과 북한 제재를 중심으로	2016.02
84	김영달	사회문화언론	북한이탈주민의 투표행태연구: 지역변수를 중심으로	2016.02
85	김충석	정치통일	제88여단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연구	2016.02
86	김현경	정치통일	김정은 권력승계의 담론 연구	2016.02
87	오세현	정치통일	김정일의 군권장악 과정에 관한 연구	2016.02
88	이제훈	정치통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비대칭적 탈냉전: 남·북·미 3각관계와 3당합당의 영향을 중심으로	2016.02
89	인교준	정치통일	북한 유일사상체계 형성의 문화대혁명 요인	2016.02
90	전범권	사회문화언론	북한 산림정책과 산림정책 환경 연구: 신년사와『로동신문』을 중심으로	2016.02
91	전태준	통일교육	체제전환국의 고등교육 개혁 비교: 베트남·중국·러시아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	2016.02
92	조우찬	정치통일	북한 갑산파 연구: 기원, 형성, 소멸	2016.02
93	허은경	사회문화언론	북한의 재미동포정책 연구: 1973~1994	2016.02
94	엄현숙	통일교육	북한의 교수방법 연구 1960-2015	2016.08
95	윤주영	사회문화언론	북한의 문화적 트라우마 연구: 전쟁과 고난의 행군기의 서사화를 중심으로	2016.08
96	최강미	사회문화언론	국가건설기 북한소설의 '인민 투사' 형상 연구, 1946~1949	2016.08
97	김경욱	통일교육	북한 교육교양의 원형에 대한 연구: 천리마시대(1956-1972)를 중심으로	2017.02
98	박찬홍	법행정	북한 시장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2017.02
99	유기홍	정치통일	김구의 낭북협상과 민족자주통일론 연구	2017.02
100	이연재	정치통일	1990년대 북한체제, 위기와 생존의 동학	2017.02
101	한상철	정치통일	한반도 이념전쟁 연구 (1919-1950): '적'의 호명과 작동	2017.02
102	조정진	문화언론	북한 통일담론 연구: 지속과 변화	2017.02
103	강주석	사회문화언론	공산주의를 만난 선교사들의 '마음': 한국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2017.08
104	김소영	경제IT	경제위기 이후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	2017.08
105	안미옥	사회문화언론	북한 수령형상회화 변화에 관한 연구	2017.08
106	양재섭	정치통일	북한 생물학의 과학적 이데올로기 수입사: 미추린주의와 계응상유전학의 공존	2017.08
107	원세일	정치통일	1970년대 북한 수령제의 정치동학	2017.08
108	이규태	정치통일	중국과 대만의 협상소통기제 연구: 남북한 관계에 주는 함의	2017.08
109	이종주	군사안보	북한 핵정책의 변동성 연구(1991-2016): [제한적 편승]에서 [전면적 내부균형]으로	2018.02
110	채경희	정치통일	북한의 장마당세대 의식 특성에 관한 연구: 기성세대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2018.02

연 번	이 름	전 공	논문제목	학위수여년
111	유판덕	군사안보	북한 '주체의 군사사상'에 관한 연구	2018.02
112	조성욱	군사안보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포괄적 해법 연구: 평화체제와군비통제관점	2018.02
113	김홍미	통일교육	조선학교' 출신 재일조선인의 특성과 통일의식: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2018.02
114	김연수	정치통일	북한 가톨릭교회의 역사적 변천 연구	2018.02
115	램마이클 데이비드	경제IT	조선통신 및 북한 정책목표: 토픽 모델링 방법	2018.02
116	윤영상	정치통일	남한정부의 한반도냉전해체전략 연구	2018.02
117	김명신	통일교육	북한 예술영화에 나타난 분단 감정구조의 변화와 지속	2018.08
118	문선혜	법행정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2018.08
119	문유진	경제IT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역할 연구	2018.08
120	이정진	경제IT	북한의 이동통신 연구: 변천과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2018.08
121	이진규	군사안보	북한 대남성명의 주제별/시기별 변화 분석: 빅데이터분석기법활용	2018.08
122	이형종	사회문화언론	북한이탈주민의 공감 경험	2018.08
123	최선경	사회문화언론	북·중 접경지역 '조선인' 에스니시티의 변화	2018.08
124	최보선	정치통일	북한·중국·소련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북한의 외교: '피봇외교'를 중심으로	2019.02
125	김현철	통일교육	통일한국의 초중등교원수요예측과 공급방안	2019.02
126	조병제	정치통일	북한-미국-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 형성과정: 1989-94년 북한의 대중 및 대미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2019.02
127	하승희	사회문화언론	북한의 악단 변화 연구(1945~2018)	2019.02
128	정연욱	경제IT	북한 인플레이션에 관한 연구: 시장가격 변동을 중심으로	2019.02
129	최영희	정치통일	북한의 신민국가 형성, 1967-1980: 주체(subject)를 생산하는 정치와 문학	2019.02
130	이경희	정치통일	북한 물 관리의 정치: 북한과 유니세프(UNICEF)의 물 협력에 대한 오스트롬 (E.Ostrom)의 사회: 생태체제 제도분석 프로그램(PIASES) 적용	2019.02
131	김영란	사회문화언론	남북 사회문화교류 변화 요인 연구	2019.02
132	이나영	사회문화언론	북한의 여성체육 담론 연구(1945-2011): 여성 전문체육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2019.02
133	김동수	정치통일	북한의 시기별 외교정책 변화 연구	2019.08
134	김서진	경제IT	개성공단의 경쟁력 및 산업연관에 관한 연구	2019.08
135	김현아	사회문화언론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모성실천 연구	2019.08
136	웨인클락	통일교육	전시의 미군 통역인: 한국상황에 북한 난민 활용방안	2019.08

졸업

연구와 교육이 결합된 북한·통일 분야 최고의 교육기관인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우수한 인력이 수학하고 있는 최고의 명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로 인재를 배출하였다. 현재까지 석사과정 516명, 박사과정 136명의 학위수여자가 배출되었으며, 졸업생들은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전공별 졸업생수

전 공	석사(명)	박사(명)
북한학	80	-
정치행정	5	-
경제협력	10	-
사회개발	6	-
통일정책	5	-
정치통일	139	54
군사안보	33	20
법행정	7	5
정보통신	3	-
통일교육	40	14
경제	14	-
사회	13	1
문화언론	6	2
경제IT	73	16
사회문화언론	82	24

연도별 졸업생수

연 도	석사(명)	박사(명)	연 도	석사(명)	박사(명)	연 도	석사(명)	박사(명)
1992	1	-	2002	12	-	2012	22	11
1993	1	-	2003	17	-	2013	21	17
1994	13	-	2004	18	-	2014	27	14
1995	13	-	2005	28	-	2015	32	15
1996	7	-	2006	21	-	2016	16	15
1997	5	-	2007	29	6	2017	27	12
1998	12	-	2008	26	1	2018	30	15
1999	11	-	2009	31	5	2019	30	13
2000	14	-	2010	28	6			
2001	10	-	2011	14	6			

졸업후 진로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관련 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 북한통일관련 정부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신문방송, 교육기관, 국내외NGO, 국제기구 등으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접경지역 답사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조·중접경지역 답사는 1996년과 1997년 두 해 교수들을 주축으로 시범 답사 여행이 있었고 199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만 해도 북한 방문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불가능했고 북한이탈주민도 많지 않았다. 조·중접경지역답사는 비록 중국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 북한지역을 보는 것이지만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었고 중국에 나온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2000년대에 교류와 협력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아지고 또한 온라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점점 많아지지만 북한땅과 북한사람을 두눈으로 보는 경험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계 및 소통의 방식, 그리고 대북 및 통일정책이나 민족문제를 새롭게 환기하고 보다 철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비학위과정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국민 전체의 통일 역량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회적 기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1998년 「고위정책과정」을 출범하여 4기에 걸쳐 운영하였다. 이후 2000년에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으로 새롭게 개설하였으며, 2016년부터 「통일미래최고위과정」으로 재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위정책과정

특별과정의 출발은 1998년 9월 시작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이었다. 북한의 핵개발, 경제난과 식량난 등의 문제로 남북관계의 방향 설정이 어려웠던 1990년대 말 우리 사회를 이끄는 각계 인사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대북관과 통일관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

남북 교류·협력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에 발맞추어 2000년 9월에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을 새롭게 개설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과정 개설에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했는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열망이 드러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과 열망 가운데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은 남북한 화해 협력의 비전을 새롭게 구상하고 각 분야의 교류 협력 전략을 세우는 장을 제공했다. 또한 경남대, 배재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각각 공동으로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지역의 많은 인사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북한, 통일 분야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통일미래최고위과정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남북 관계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2016년 3월부터 「통일미래최고위과정」으로 재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일미래최고위과정」은 사회 각 분야 지도층 인사들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요구되는 지식을 쌓고 현실적인 전략과 비전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감 있는 최신 자료와 고급 정보에 기초한 수준 높은 강의로 각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각 분야는 물론 국가 차원의 전략과 비전을 진전시키는 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 구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각종 학술회의 및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편 북한학 교재개발 사업, 조중접경지역현지답사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사회를 보다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연구하고 보다 적실성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고자 2012년 '북한미시연구소'를 설립하였고, 2016년 '심연북한연구소'로 개편하여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활동의 중심거점으로 삼고 있다.

북한미시연구소

북한미시연구소는 2012년 설립된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으로 북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미시적 연구소를 통해 북한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북한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여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북한연구 분야의 전문학술지 「현대북한연구」를 발간하여 북한 및 통일 관련 담론의 지형을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접촉지대와 남북한 마음체계의 통합,' '북한현장 정보 수집, 관리,' 등 남북한의 다양한 '접촉지대'에서 어떠한 '마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증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축적했다.

접촉지대와 남북한 마음체계의 통합

지원기관/사업명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소형단계
연구기간	2011.09.01 ~ 2014.08.31 (3년)
연구요약	남북한의 '마음의 만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이고 실증적인 사례를 축적한다. 사회통합의 궁극적 형태가 마음의 통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마음' 개념을 도입하고, 남북한 통합에서 '마음'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남북 마음체계의 차이와 유사성, 충돌과 소통의 기제들을 밝혀 통합의 기초자료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세기 북한 예술 문화 사전

지원기관/사업명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기간	2012.09.01 ~ 2015.08.31 (3년)
연구요약	북한 문학예술 연구에서 지식생산의 원천을 제공하고 연구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어에 대한 단순한 언어적 정보를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사전이 아닌, 북한 예술문화 제 분야의 이론, 용어, 작가, 작품 등에 관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지식정보를 담은 백과사전을 지향한다. 사전 편찬 과정을 문화번역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남북한의 상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의 마음체계 비교 연구

지원기관/사업명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중형단계
연구기간	2014.09.01 ~ 2017.08.31 (3년)
연구요약	사회통합의 미시적 기초이자 궁극적 형태가 마음의 통합이라는 소형단계에서의 문제의식 하에, 남북한 마음 통합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기반을 닦는 것을 중형 단계의 비전으로 설정한다. 남한,북한, 타 체제전환국의 마음체계를 조사 및 비교분석하여 사회문화, 정치, 경제, 사회심리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북한주민들이 형성한 특정한 감각, 감정, 인식, 가치관 등 마음의 지층구조에 대한 지질학적 탐색을 전개하고,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회주의 조직 원리의 변화 등으로 대표되는 탈냉전/글로벌 시대 사회변화와 더불어 진행 중인 북한주민의 마음의 탈구/접합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남북한 사회통합에 주는 함의를 연구한다.

심연북한연구소

2016년에 북한미시연구소의 성과를 기반으로 개편된 심연북한연구소는 '남북한 마음체계 비교' 연구를 심화시키고 이를 남한 및 다른 체제전환국과 비교하여 남북한 마음체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2017년부터 한국연구재단 SSK "남북한 마음체계 통합기제 연구 및 사회통합 이론의 재구성" 연구사업을 착수했다. 이 사업에서는 '남북한 마음체계 갈등 구조의 중층성 분석', '남북한 마음체계 분석의 국제화', '한반도 마음통합의 이론화', '한반도 마음통합의 정책화 연구' 등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마음체계 통합기제의 이론화를 위한 연구들을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문화예술 개념의 분단사

지원기관/사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총서사업
연구기간	2016.06.01 ~ 2019.05.31 (3년)
연구요약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영화, 미학 등에서 사용되는 보편적, '한반도 특수적' 개념들이, 자생적 근대와 번역된 근대가 충돌하던 시점에서부터 해방공간을 거쳐 분단의 길로 가는, 역사를 탐색하는 작업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개념의 수입과 수용 그리고 전통적 개념의 (재)발견이 해방공간의 백가쟁명을 거쳐 분단 이후 남북한에서 각기 다른 고유의 의미를 획득하면서 변용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마음체계의 통합기제 연구 및 사회통합이론 재구성

지원기관/사업명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대형단계
연구기간	2017.09.01 ~ 2019.08.31 (2년)
연구요약	소형단계의 '남북한 접촉지대 연구', 중형단계의 '남북한 마음체계 비교연구: 마음의 지질학 연구'를 기반으로, 대형단계에서는 한반도 갈등과 통합 연구의 '마음적 전환'을 시도한다. '마음체계의 통합기제 및 사회통합이론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남북한 마음체계 갈등구조의 중층성 분석', '남북한 마음체계 분석의 국제화', '한반도 마음통합의 이론화', '한반도 마음통합의 정책화'를 목표로 한다.

정책연구 프로젝트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2005년 이래 100여 개의 정책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추진과 관련한 이론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인 정책연구로는 "남북한 통합과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개성공단사업 미래 구상의 실행계획 추진방안,"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연구," "북한의 산업현황에 관한 탈북자 심층면접 조사," "한국의 탈북자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분단 70년 남북분단과 대한민국," "남북한 통일과정에 대비한 해외 통합사례 심화 연구," "북한지역 디지털자료센터 구축" 등이 있다.

연 번	기 간	지원기관	과제명
1	2005.03.10- 2005.10.04	통일연구원	남북한 통합과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2	2005.07.06- 2005.07.07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국제심포지엄 개최
3	2005.09.01- 2005.11.30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문제 해결 이후의 남북경협 추진 방향과 국제협력
4	2005.09.01- 2006.08.31	한국학술진흥재단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영역(PRIVATE SPHERE) 연구 : '고난의 행군'의 효과에 대한 미시적 분석
5	2005.10.13- 2005.12.12	동북아시대위원회	중국 동북진흥계획과 남북중 삼각협력: 분석과 대책
6	2005.10.17- 2005.10.21	국가정보원	아리랑 축전 참가자 조사
7	2005.12.01- 2006.11.30	한국학술진흥재단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평화, 안보담론
8	2006.02.01- 2006.10.31	서울시	서울시 통일여성아카데미
9	2006.02.01- 2006.10.31	통일연구원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실태조사
10	2006.04.27- 2006.05.26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 공동체 구축과 대학의 역할
11	2006.05.12- 2006.11.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12	2006.05.26- 2006.08.25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
13	2006.06.23- 2006.09.2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한국 대외협력 정책의 전략적 모색
14	2006.08.11- 2006.09.29	동북아시대위원회	한반도 경제구상의 이론적 틀
15	2006.08.14- 2006.11.13	한국석유공사	민족공동 자원개발 전략구상
16	2006.08.23- 2006.11.22	국회국방위원회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연합 방위태세 변화에 대한 연구

연 번	기 간	지원기관	과제명
17	2006.09.29- 2006.12.28	국회외교통상위원회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18	2006.10.29- 2006.12.20	통일부	개성공단 2단계 이후의 개발구상 점검에 관한 연구
19	2006.11.01- 2008.10.31	한국학술진흥재단	북한 접경지역에서 국경 도시네트워크의 출현과 변화
20	2006.11.23- 2006.12.31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 추진 체계 수립
21	2007.03.07- 2007.12.31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22	2007.04.01- 2007.09.30	대통령비서실	한국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23	2007.05.21- 2007.08.20	국회사무처	북한 영상물 열람제도 개선 방안 연구
24	2007.06.01- 2007.10.31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미래 구상의 실행계획 추진방안
25	2007.09.12- 2007.09.13	통일부	평화 및 통일 특화 교육
26	2007.11.15- 2007.12.14	통일부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추진과제
27	2007.11.26- 2007.12.20	통일부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해제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8	2008.03.04.- 2008.05.03.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1단계사업 평가 용역
29	2008.05.06- 2008.08.31	무지개 청소년센터	새터민청소년 정착초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30	2008.07.02- 2008.11.29	통일부	북한의 거시경제 운용 체계 연구
31	2008.07.07- 2008.10.06	통일부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변화 분석
32	2008.07.22- 2009.01.21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

연 번	기 간	지원기관	과제명
33	2008.10.07- 2008.12.06	국회사무처	북한이탈주민관련 법률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34	2008.10.09- 2008.12.31	통일연구원	비핵 개방 3000 구상' 실현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안
35	2008.10.27- 2008.10.29	대한주택공사	북한 경제, 문화와 한반도 평화 이해과정 교육
36	2008.12.01- 2009.01.31	대통령실	오바마 체제하의 남북관계 전망 및 정무적 대응방향 연구
37	2009.03.20- 2009.06.30	국회사무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원칙을 가진 포용정책'의 구체적인 행동계획 연구: 대북정책-한미동맹-국내통합의 3중 포괄 접근법을 중심으로
38	2009.04.01- 2009.12.31	통일연구원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한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천방안
39	2009.04.07- 2009.10.06	경기도의회	경기도 남북교류사업 평가 및 다각화 방안 연구
40	2009.04.14- 2009.08.01	통일부	남북한 관계와 한일협력
41	2009.06.25- 2009.10.05	경찰청	북한상황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42	2009.07.03	국제정책연구원	상생공영정책 1년의 평가와 과제
43	2009.08.01- 2009.09.30	통일부	北「150일 전투」평가 및 과거 사회주의노력경쟁운동 사례 비교
44	2009.10.01- 2009.12.30	국회사무처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관한 연구
45	2009.11.01- 2011.10.31	한국연구재단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
46	2010.04.06- 2010.08.25	통일부	남북간 새로운 대화 틀 정립 방안-핵문제, 납북자·국군포로 등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47	2010.05.19- 2010.11.18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연구
48	2010.06.01- 2010.11.30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하나원 교육 효과성 분석

연 번	기 간	지원기관	과제명
49	2010.06.30-2010.09.29	통일부	비핵 개방 3000 소요재원 추계 및 조달방안
50	2010.08.11-2010.11.10	국회사무처	북한의 향후 변화 예측과 대응방안
51	2010.11.29-2010.12.24	통일부	북한 군사모험주의 노선의 조건과 전망
52	2011.04.20-2011.08.03	한국정보화진흥원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53	2011.06.13-2011.10.12	국회입법조사처	'G-2체제'의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모색
54	2011.07.01-2012.06.30	한국연구재단	한국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 비교
55	2011.09.01-2012.08.3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에 관한 연구
56	2011.10.28-2011.12.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유형에 대한 기초연구
57	2012.03.15-2012.04.30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사업평가
58	2012.03.22-2012.11.17	통일부	북한 현장정보 수집 관리(심층면접사업)
59	2012.05.11-2012.10.10	지역발전위원회	북한경제권의 지역발전 전략 연구
60	2012.06.27-2012.12.10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61	2012.08.01-2013.01.28	통일부	미래지향적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모색
62	2012.12.28-2013.02.28	산업연구원	2000년대 북한경제 부문별 평가
63	2013.02.19-2013.04.18	통일교육원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64	2013.03.29-2013.08.28	한국토지주택공사	북한 경제특구개발을 위한 해외사례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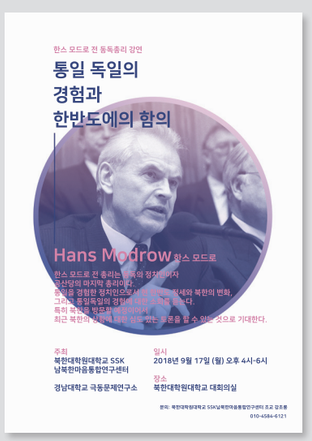
연 번	기 간	지원기관	과제명
65	2013.04.29-2013.08.31	국회입법조사처	유럽에서의 핵 논쟁 사례가 북핵문제에 주는 시사점
66	2013.05.27-2013.08.26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이란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응
67	2013.06.01-2013.11.3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평가와 개선방향
68	2013.07.01-2013.11.30	㈜포스코경영연구소	북한의 산업현황에 관한 탈북자 심층면접 조사
69	2013.08.01-2013.11.30	산업연구원	북한경제 쟁점도출 및 주요쟁점 분석
70	2013.08.29-2013.11.26	국방대학교	북한의 경제분야 변화 가능성
71	2013.10.21-2013.12.20	통일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 연구
72	2013.12.02-2014.03.31	일본 내각 관방납치문제 대책본부사무국	한국의 탈북자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일본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73	2014.07.14-2014.12.13	통일부	2009-2014년 북한의 대외관계 분석평가 종합편람
74	2014.07.24-2015.07.23	한국가스공사	북한지역 천연가스 최적화 공급방안 연구
75	2014.08.29-2014.11.11	국방대학교	북한의 경제 변화 가능성 및 전망 연구용역
76	2014.10.15-2014.12.30	대통령비서실	문화의 통로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
77	2015.04.27-2015.11.2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분단 70년, 남북분단과 대한민국
78	2015.05.15-2015.12.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지원 방안
79	2015.06.01-2015.09.30	통일부	나선경제특구 개발 동향 및 경제협력 발전방안 연구
80	2015.06.22-2015.12.31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 20주년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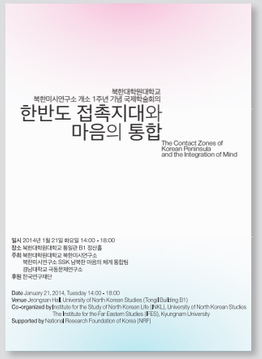
연 번	기 간	지원기관	과제명
81	2015.08.28-2015.12.27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ICA의 체제전환국 개발협력사업 성과 연구
82	2015.09.01-2016.08.31	한국연구재단	'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와 극단적 양극화 분석
83	2015.09.21-2015.12.21	통일부	노동신문 사설·정론을 통해 김정은 정권 분석 및 평가
84	2015.10.07-2015.12.07	통일부	북한의 사유화 실태 및 함의
85	2015.10.27-2016.03.18	통일연구원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 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 과제
86	2016.07.01-2016.10.31	통일연구원	통일·북한 학계 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87	2016.07.29-2016.10.28	통일부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 방안
88	2016.08.26-2016.12.09	통일부	김정은 집권 5년간 북한경제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89	2016.09.01-2016.10.31	통일교육원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연구용역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통치리더십)
90	2016.09.01-2017.08.31	한국연구재단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91	2017.04.25-2017.12.18	통일부	2017년 탈북자 방북자 대상 심층정보수집 사업
92	2017.05.01-2019.04.30	한국연구재단	통합,경합,(재)구성: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93	2017.06.19-2017.11.30	국회입법조사처	대(對) 미·중·일·러 의원외교·통일외교 실태와 협력 강화 방안
94	2017.07.01-2019.06.30	한국연구재단	국장과 사회장으로 본 북한 엘리트 연구 1948-2018
95	2017.09.01-2018.08.31	한국연구재단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자생적 개인사업자 계층의 비공식적 연결망 및 신뢰 구축과 체제이행의 전망
96	2017.11.20-2017.12.19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콘텐츠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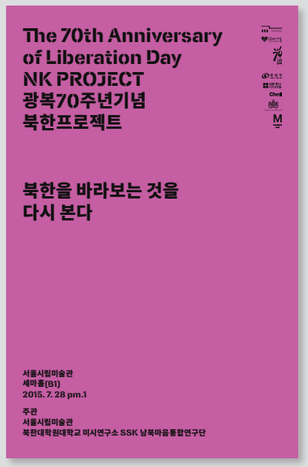
연 번	기 간	지원기관	과제명
97	2018.04.13-2018.11.30	통일부	2018년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
98	2018.08.13-2018.11.13	경찰청	남북화해 협력시대 보안경찰의 업무범위와 역할
99	2018.09.01-2019.08.31	한국연구재단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담론과 혼종형 체제이행 방식의 제한성
100	2018.10.15-2018.12.14	통일부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 개발
101	2018.10.17-2018.12.10	법무부	북한 기업법제에 관한 연구용역
102	2019.04.29-2019.11.30	통일부	남북한 통일과정에 대비한 해외 통합사례 심화 연구 (EU:유럽연합의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103	2019.05.01-2020.04.30	한국연구재단	남북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분단사 서술 비교 연구
104	2019.05.17-2019.09.16	통일부	비핵화 진행에 따른 북한 경제발전 경로 전망 및 정책 과제
105	2019.06.05-2019.10.04	국방대학교	한반도 군비통제: 유럽사례 분석과 함의를 중심으로
106	2019.07.01-2020.06.30	한국연구재단	기술의 번역: 북한 스마트폰의 사회기술적 형성에 관한 연구
107	2019.06.01-2020.05.31	한국학중앙연구원	북한지역 디지털자료센터 구축
108	2019.07.29-2019.11.28	통일부	북일관계 현황 및 향후 전망

학술회의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2007년 이래 약 50회에 걸쳐 국제학술회의 및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관련 연구 의제를 선제적으로 설정해 왔다. 대표적인 학술회의의 주제로는 “전환기 북한의 정책선택,” “격동 속의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새로운 남북관계 전망,”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위협감소,” “한미협력관계,” “독일통일의 정치,” “평화와 안보의 신패러다임” 등이 있다.







일 자	[행사명] 주제	공동주최
1998.05.28 -05.29	[경남대학교학교 북한대학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 전환기 북한의 정책선택: 국내구조와 대외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 한겨레신문사, 한국프레스센타, 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1999.05.27 -05.28	격동 속의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경남대학교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아세아연구소
2000.05.25 -05.26	Th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w Millenniu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카나가와대학 국제교류센터, 아사히신문
2001.03.22 -03.23	[Asian Perspective 창간 2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새로운 남북관계 전망	경남대학교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겨레신문사, (주)삼성전자
2001.10.12 -10.13	동북아 질서의 재구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카나가와대학 국제교류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05.22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하여	경남대학교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05.23 -05.24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2년간의 성과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SK Telecom,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한국언론재단
2003.11.05	한반도의 위기와 평화 - 갈등 중심에서 평화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언론재단
2005.07.06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한국수출입은행
2006.07.06 -07.07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한국경제신문, 한국수출입은행
2007.05.18	The Cold War and the Korean Peninsula : The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우드로우윌슨센터, 중국 북경대학교
2007.11.19	[2007 남북정상회담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2008.02.01	글로벌파트너쉽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위협감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한캐나다대사관
2008.05.01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2009.06.05	China-US Relations and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in the Obama Era	중국 상해국제연구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우드로우윌슨센터
2009.09.21	The Korea-US Cooperation: Challenges and Task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우드로우윌슨센터
2010.01.29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우드로우윌슨센터
2010.07.01 -07.02	Th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A Critical Oral History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우드로우윌슨센터
2010.07.14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North Korea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한국학센터
2010.10.15	독일 통일의 정치: 한반도에 주는 교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2012.11.26	Workshop on the Cold War & the Korean Peninsula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우드로우윌슨센터
2012.11.27	Regional Dynamics and Inter-Korean Relations, Past and Present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우드로우윌슨센터
2013.06.03	개성공단을 통해 본 분단과 통합: 접촉지대·네트워크·노동행위자 관점	동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SSK연구팀
2013.06.12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성과 및 향후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2013.12.03 -12.04	The Carter Chill: US-ROK-DPRK Trilateral Relations, 1976-1979 (A Critical Oral History Conference)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우드로우윌슨센터
2014.01.21	[북한미시연구소 개소1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반도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	경남대학교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10.17 -10.18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질서	한국평화연구학회,한국민족통일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회
2014.12.05	Marketization, Social Change, and the Impact of the Korean Wave in North Korea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우드로우윌슨센터
2015.07.28	[광복70주년기념 북한프로젝트] 북한을 바라보는 것을 다시 본다	서울시립미술관
2015.08.19	북한의 마음, 마음의 북한	

2015.08.21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보편과 특수로서의 북한 문학예술, 그 중층적 독해의 가능성	반교어문학회,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5.09.05 -09.06	해방 70년, 패전 70년, 승전 70년의 아시아 : 마음의 분단과 기억의 경쟁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시민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일본 나가사키대학 다문화사회학부
2015.11.19	군사문화와 마음체계	북한연구학회
2016.03.07	통일교육을 통한 남북한 마음의 교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016.04.20	동아시아에서의 갈등과 화해: 타자의 조명과 마음의 해석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SSK 문화거버넌스연구단
2016.05.20	남북한 마음의 통합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역할: 정책방향의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2016.06.02	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방향: 남북한 마음통합의 관점에서	통일부
2016.12.08	북한의 이동, 북한 사람의 이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7.06.14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Modernization and New Consumeris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2017.08.28	남북통합 과제와 마음통합의 접근	한국정치정보학회
2017.12.09	익숙한 정치의 지형, 새로운 자본의 지형	한국문화연구학회
2017.12.22	마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분단체제와 북한이탈주민	충남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2018.04.05	환대의 마음: 공생과 통합의 문화정치학적 탐색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8.06.01	평화와 안보의 신패러다임	한국정치정보학회,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2018.12.20	한반도의 분단과 통합: 유럽, 아프리카 사례와의 비교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04.05	한반도 평화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통합의 방향	서울특별시 남북협력추진단
2019.05.03	한반도 평화로의 마음적 전환: 이론과 실제	
2019.06.03	[고 서동만 교수 10주기 추모 학술회의] 북한 연구의 마음	북한연구학회
2019.06.19	분단된 마음의 이해: 마음체계 통합의 이론화를 위한 기반	

초빙교수연찬회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경남대학교와 공동으로 2002년부터 매해 초빙교수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초빙교수연찬회는 고건 전 국무총리, 강창희 전 국회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손주환 전 공보처 장관,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등 다수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당면한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관련한 현안을 토의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자리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철기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등 현직 장관급 인사들이 주요 연사로 등단하여 현안과 관련한 깊이 있는 분석을 들려주고 있다.

년 도	개최일	주 제
2002	2002.01.17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2003	2003.01.28	새 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2004	2004.01.14	북한 핵문제와 대북정책 방향
2005	2005.01.12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2006	2006.01.09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
2007	2007.01.26	남북관계 전망과 남남갈등의 해법
2008	2008.02.01	새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2009	2009.02.03	세계질서 재편과 남북관계
2010	2010.02.16	남북관계 발전과 국민통합
2011	2011.02.15	중국의 부상, 미중관계와 한반도
2012	2012.01.17	2012년 남북관계 전망
2013	2013.01.08	새 정부의 대북정책
2014	2014.01.03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방향: 열림, 울림, 어울림
2015	2015.01.06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2016	2016.01.06	남북관계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2017	2017.02.07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전망
2018	2018.01.16	한반도와 동북아의 인도주의 건설
2019	2019.01.08	남북관계와 9.19군사합의

2006.01.09
2006 초빙교수연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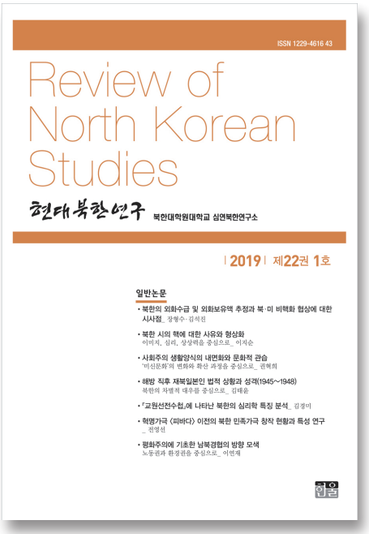
2013.01.08
2013 초빙교수연찬회

전문가 워크숍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매해 본교 교수진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지식교류를 목적으로 '전문가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김정일 시대의 평가와 김정은 시대의 전망," "평화공존 시대의 통일교육," "정상회담 이후 북한 주민 일상생활의 변화, "북핵문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풀 것인가?" 등의 주제 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북한학의 모든 영역에 걸쳐 최신 연구 동향 및 쟁점과 관련한 심도 있는 토론과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 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는 1998년에 창간되어 연 3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문학, 철학, 과학사 등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북한관련 종합학술지이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인 현대북한연구는 북한 및 통일연구의 양적, 질적 발전에 힘써왔으며, 향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험적이며 분석적인 논의와 이론 구축을 위한 학문의 장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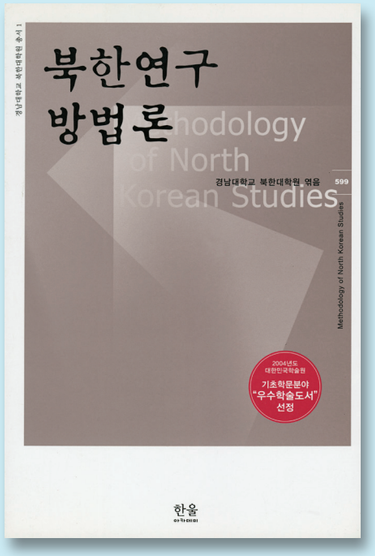
기획 특집호

권 호	발행일	주 제
창 간 호	1998.11.20	북한연구 방법론의 재검토
2권 1호	1999.06.30	북한 국가형성의 재조명
2권 2호	1999.12.31	1950년대 북한의 정치와 사회
3권 1호	2000.06.30	한국전쟁, 반세기 이후의 재해석
3권 2호	2000.12.30	김정일의 경제 발전 전략
5권 1호	2002.06.30	1960년대의 북한: 안보와 경제의 정치적 동학
5권 2호	2002.12.31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경제개혁
6권 1호	2003.06.30	1970년대 북한의 정치와 사회
6권 2호	2003.12.31	북한의 대미 인식과 북미 협상
7권 1호	2004.05.31	북한의 1980년대
8권 1호	2005.04.30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미친 영향
17권 2호	2014.08.31	동시대 북한 문학예술의 감성
17권 3호	2014.12.31	남북한 마음의 통합
18권 2호	2015.08.31	북한과 분단정치
21권 2호	2018.08.31	마음체계의 통합기제 연구 및 사회통합 이론 재구성

북한연구총서

북한연구총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전신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시기에 시작된 출간물 시리즈이다. 북한연구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학 연구방법론, 남북관계론, 남북한 군사론, 북한문화론 및 일상 연구, 그리고 북한 역사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연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영역을 선정하여 총서로 출간하였다. 또한 북한 연구에 필수적인 각종 사료를 연도별로 정리한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 1권부터 30권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함께 간행하였다.

연 번	제 목	지은이	연 도
1	북한연구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3
2	북한현대사 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4
3	남북한관계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5
4	북한 연구의 성찰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5
5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6
6	북한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6
7	북한도시주민의사적영역연구	이우영 엮음	2008
8	북조선실록:년표와 사료 1~30	김광운 엮음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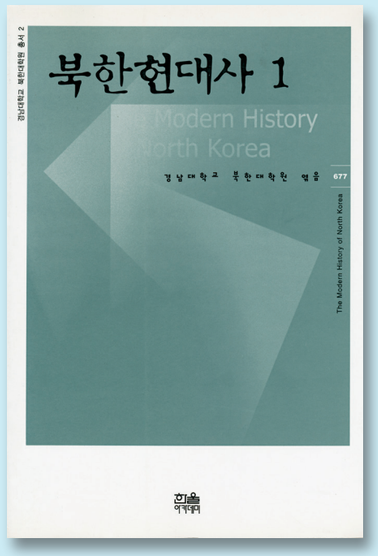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3

북한연구방법론

북한연구의 학술적 기초를 세우기 위한 시도로써 북한과 통일 분야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방법론 연구서이다.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북한의 공식간행물과 문헌과 언론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부터 비교사회주의 연구방법, 그리고 탈북자 면접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목 차

제1장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제2장 김일성·김정일의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3장 북한 언론매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4장 북한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활용
제5장 주체사상과 북한연구
제6장 북한 통계자료 분석 및 추정
제7장 북한경제 연구방법론: 시각, 자료, 분석틀을 중심으로
제8장 북한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
제9장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제10장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4

북한현대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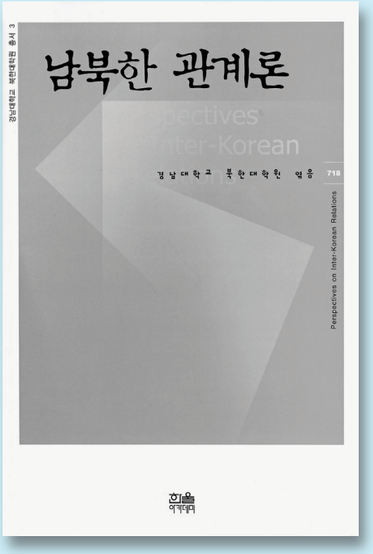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북한현대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서이다. 정치·경제·사회 등의 영역에서 국가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1950년대와 60년대 북한의 체제가 완성되는 역동의 시기를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과거를 살펴본다는 것은 북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북한의 미래 예측과 한반도의 평화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목 차

제1부 1940년대
제1장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제2장 산업의 국유화와 인민경제의 계획화 : 공업을 중심으로
제3장 북조선로동당의 당원 확장과 당의 변화
제4장 북한 문화의 형성, 1945 ~ 1950
제5장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제2부 1950년대 북한의 정치와 사회
제6장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변동과 권력재편
제7장 1950년대 북한의 정치와 권력: 인전대적 동원체제 형성과 3중의 권력투쟁
제8장 1950년대 북한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제3부 1960년대의 북한: 안보와 경제의 정치적 동학
제9장 1960년대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유일사상의 대두: 제한적 다원성에서 유일체제로
제10장 북한의 경제발전론 재론 : 1960년대 경제조정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11장 1960년대 북한의 노동정책과 분배
제12장 196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군사화의 대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6

남북한관계론

한반도를 갈라놓은 분단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생성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서는 남북한의 분단구조의 근원과 현상으로 나타나는 갈등과 대결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관계와 남북 각각의 국내정치가 어떤 맥락에서 작동하는지 분석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분단구조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
제2장 남북한 관계의 역사적 맥락
제3장 남북한 관계의 이론들
제4장 남북한 관계의 특성
제5장 탈냉전기 국제 환경과 남북한 관계
제6장 남북한 관계와 남한의 국내정치
제7장 남북한 관계와 북한의 국내정치
제8장 남북한 군비 경쟁과 군축 전망
제9장 남북한 경제관계의 오늘과 내일
제10장 남북한 협상 형태
제11장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과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6

북한 연구의 성찰

지금까지의 북한연구를 성찰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북한연구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연구서이다. 북한연구의 성과를 정치, 경제, 사회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북한연구의 쟁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였다. 덧붙여 국제정치적 맥락과 남북관계라는 두 축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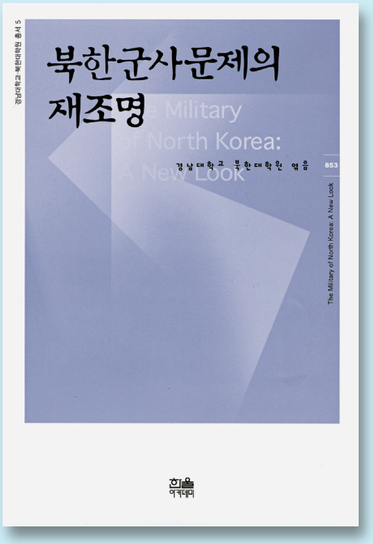
제1부 북한 정치
1 북한 '변화' 연구: 과학성과 통찰력 사이에서
2 김정일 지도자와 북한 체제: 우상과 실제
3 북한의 진실 게임과 사즉생의 선군 정치

제2부 북한 경제
4 북한 경제 연구의 딜레마와 제언: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5 북한 경제와 경제이론

제3부 북한 사회
6 북한 사회연구 혹은 사회학적 북한 연구
7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북한 문학 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제4부 북한과 국제정치
8 북미 핵협상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대결과 타협의 변주곡
9 북한 연구의 '국제정치': 오리엔탈리즘 비판
10 패권의 굴레: 북미 갈등과 한반도의 평화

제5부 남북한 관계
11 햇볕 정책을 넘어서: 논쟁과 대안의 모색
12 북한 이탈주민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의,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13 소프트해진 통일교육, 그 쟁점과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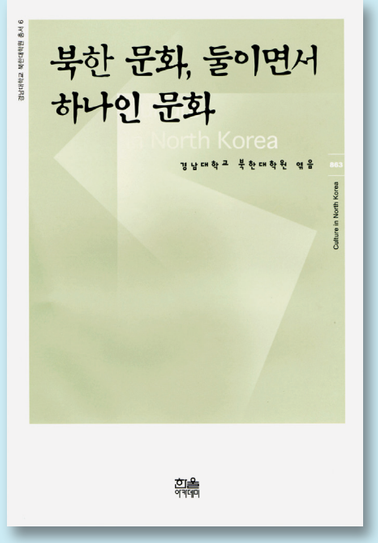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5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

분단문제는 필연적으로 군사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서는 북한군사문제를 인민군의 성장과정을 고찰하는 역사적 연구, 군사전략 및 군사력 등 병법 연구, 그리고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군정에 관한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북한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안보 및 군사문제를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고찰하였다.

목 차

제1장 북한군사연구 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제2장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제3장 당·군관계와 선군정치
제4장 북한 군사력의 경제적 기초: '군사경제' 실체에 대한 역사적·실증적 분석
제5장 북한의 군사력 및 남북한 군사력균형
제6장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정책
제7장 북한외교와 군사력의 역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5

북한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정치학 중심의 북한연구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로써, 북한 사회 전반을 소개한 책이다. 북한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 생활문화와 예술, 그리고 통일정책에 대한 전망까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북한사회와 예술 전반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문화와의 소통 방안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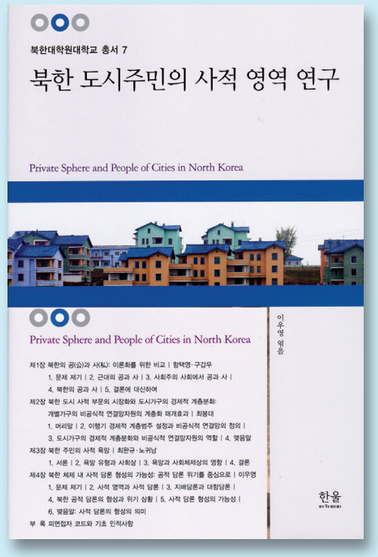
목 차

제1부 북한 문화의 자리
제1장 북한 문화예술의 개념 및 역할
제2장 북한의 문예이론과 창작방법론
제3장 북한의 문화예술정책

제2부 북한의 생활문화
제4장 북한의 일상생활
제5장 북한의 도시와 건축
제6장 북한의 체육
제7장 북한의 민족문화정책과 민속문화

제3부 북한의 예술
제8장 이북 문학의 흐름:
제9장 주체영화예술론과 우리식 사회주의
제10장 북한의 음악
제11장 북한의 미술
제12장 북한의 공연예술

제4부 남북한 문화의 공존
제13장 남북한 문화의 차이
제14장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
제15장 분단문화의 극복과 통일문화에의 길



이우영 엮음, 2008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영역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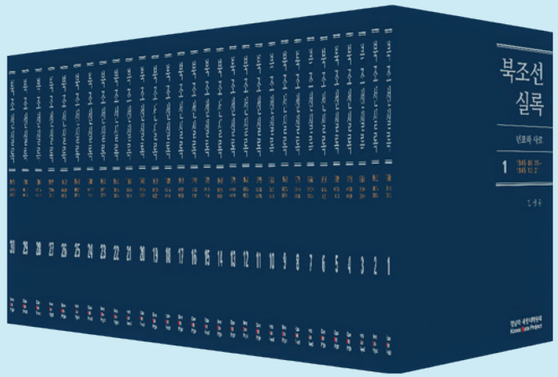
북한의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기획된 연구서이다. 북한 주민의 변화된 삶은 단순히 그들의 생존전략 수준에 머물지 않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발생한 국가부문의 공식경제 관리나 공식적인 사회정치적 관계망의 작동방식, 그리고 일상생활의 재생산 등에서 포착되는 질적 변화가 함축할 수 있는 체제이행론적 의미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목 차

제1장 북한의 공(公)과 사(私) 이론화를 위한 비교
제2장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인 연결망지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제3장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
제4장 북한 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1~30권

북한 이해의 기초로 사용할 사료를 수집·정리하여 연표, 사진, 그리고 해설 등을 묶어서 편찬 간행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연구에서는 신뢰할만한 1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학적 연구의 한계와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서는 지금까지 파편적으로 존재해온 1차 자료를 검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북한연구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간행된 자료는 총 30권이며, 향후 약 1000 여권 분량의 자료를 정리 및 편찬하여 출간할 예정이다.



김광운 엮음, 2018

심연북한연구소 총서

심연북한연구소는 SSK 남북한마음통합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개념의 분단사 연구 등 북한 및 통일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의 활동과 각 연구 프로젝트의 진척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출간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 이슈에 관련해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작업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연 번	제 목	지은이	연 도
1	분단된 마음 잇기 : 남북의 접촉지대	이우영 외 공저	2016
2	대북제재의 정치경제학	양무진 외 공저	2016
3	분단된 마음의 지도	이우영 외 공저	2017
4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 문학예술편. 1	구갑우 외 공저	2018
5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 문학예술편. 2	김성수 외 공저	2018
6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 문학예술편. 3	김성경 외 공저	2018
7	분단 너머 마음 만들기	이우영 외 공저	2019

이우영 외 공저, 2016

대북제재의 정치경제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국가 간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관련국마다 북한의 핵개발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차원이건 혹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건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로는 핵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핵개발을 통해 핵을 보유하고, 핵 투발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 및 개별국가의 제재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2270호와 독자제재를 중심으로
2.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3.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 핵비확산 정책전환: 전면적 봉쇄전략의 국민적지지
4. 북한출신자의 남한살이: 대북제재와 탈북자의 분열증적 정체성
5. 대북제재의 국제정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에 이르는 길
6. 대북제재와 동북아 외교의 방향

이우영 외 공저, 2016

분단된 마음 잇기 외 2권

한국연구재단의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의 성과물을 묶어낸 총서로써, '마음'이라는 키워드로 분단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분단은 이성과 인식의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몸과 마음에도 깊게 각인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의 통일, 사회 통합의 문제는 분단되어 적대하고 있는 남북한의 마음을 통합하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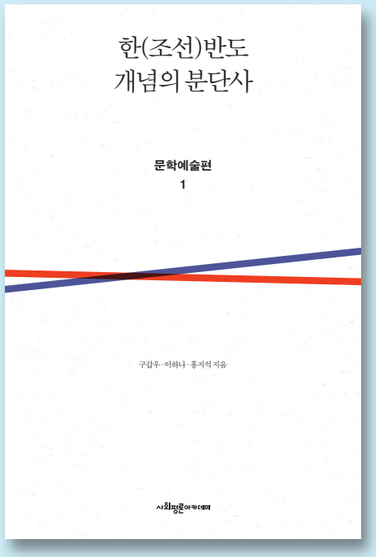
남북한마음통합센터의 첫 번째 학술서인 『분단된 마음잇기: 남북한의 접촉지대』는 분단을 내재화한 사람, 기관, 집단 등이 만나서 충돌하고 싸우는 공간인 접촉지대에 주목한다. 북한출신자와 남한주민이 만나는 임대주택단지, 남한의 관리자와 북한의 노동자가 만나는 개성공단, 남북한이 만나 협상하는 남북회담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장소'를 분석하고, 동시에 해외의 사회통합 사례를 통해 한반도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학술서의 『분단된 마음의 지도』는 통합의 또 다른 주체인 북한주민의 마음의 면면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고난의 행군에 주목하여 분석한 연구, 해외 거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를 바탕으로 그들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 등 분단을 내재화한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작동을 본격적으로 탐색하였다.

세 번째 학술서인 『분단 너머 마음 만들기』는 분단 극복을 위한 마음 통합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갈등의 심층 구조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도, 이를 극복하여 통합적이면서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우영 외 공저, 2017

이우영 외 공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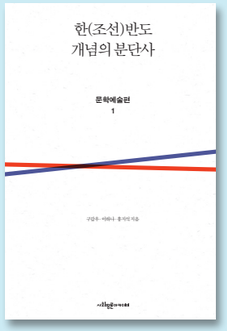


구갑우 외 공저,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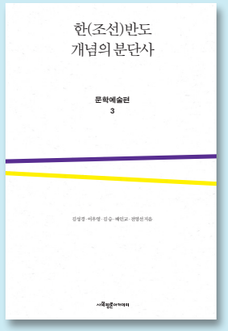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1~3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 프로젝트 <분단의 개념사>의 연구 성과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현 상황이 사실은 개념의 분단으로 매개되고 강화되고 있음을 밝히는 작업으로, 현대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잇고, 미시적·일상적 수준에서 문학예술의 개념에 투영된 분단의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기획되었다.

한(조선) 개념의 분단사: 문화예술편 1권~3권은 분단을 (재)구성하고 한반도의 특수한 문학예술 개념을 선도하는 '민족'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문학예술 분야와 접속한 '민족' 개념은 '민족적인 것'과 관련된 공동체의 전망과 기대를 투영한다. 민족문학, 민족미술, 민족음악, 민족영화, 민족미학 등은 남북한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기표이지만, 민족의 정의부터 식민시대 민족과 문학예술의 해석 그리고 분단 이후 전개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해 온 개념들이다.



김성수 외 공저, 2018



김성경 외 공저, 2018

미래로

박 재 규 설립자/북한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전 통일부 장관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생 여러분, 그리고 동문 여러분,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나아갈 길을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그리고 극동문제연구소가 47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와 우리 나라 북한학 연구와 교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연구소와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혼신의 힘을 쏟았고, 동문들이 학업을 마치고 북한학 연구자로서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왔고,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난 30년의 성취를 자축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북한을 연구하는 목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긍정적인 발전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없이는 요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었던 냉전 시기에는 북한 및 사회주의권 전반에 대해 아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냉전 시기가 지나면서 북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북핵 위기를 겪으며 현실정치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고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야할 지 조금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북핵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들어온다면 어떠한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읽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것을 바탕으로 다가올 남북관계에 대비하는 북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북한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고 대외관계를 개선하려는 한편, 남북간에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초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속력을 얻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또한 구사회주의권과의 비교적 관점 또한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 북한학 연구의 메카에서 세계적인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이제까지도 잘 해왔지만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북한에 대한 시각과 연구를 공유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최고이니 다음 목표는 '세계 최고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의 이해 없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가 힘들고 이들의 협조 없이 북한의 성장과 발전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외 대학, 연구소, 매체에서 우리의 의견을 요청할 때 즉시 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의 근본 목적을 항상 생각하고, 한 걸음 앞서 나가며, 세계와 교류할 수 있을 때, 북한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교육 받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적인 북한학 연구·교육의 메카가 되는 꿈을 꿉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북한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전문 분야로 확대될 수 있게 연구와 교육과정을 보다 전문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북한학 연구의 개척자, 선구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맡았던 연구소와 대학원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전문 지식 생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가장 뛰어난 전문가를 더 모셔오는 등 교수진을 보강할 것입니다. 학생, 동문 및 북한대학원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미래를 준비하는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연구와 업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우리 나라에 둘도 없는 북한학 연구·교육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수학하고 있으며 이들을 북한·통일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북한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전문 지식을 쌓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기여할 소수정예의 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와 구성원 모두가 힘을 쏟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앞서서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명의 변화,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의 변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고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나가고 한반도로부터 시작된 변화를 세계로 이어가는 세계적인 연구·교육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통일 분야 국내 최고라는 명성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앞으로의 30년,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안보, 동북아 질서 모든 것이 유동적입니다. 1980년대 냉전이 해체된 이래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움직여 왔고 한반도는 그 위에서 다시 한 번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뿐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도, 주변국의 입장에서도 연구하고 바라보는 노력을 기울입시다.

박재규

발행일 2019년 9월 10일

디자인 (주)해인기획

발행인 안호영

발행처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 2(삼청동)
Tel. 02-3700-0800~2 Fax. 02-3700-0748
http://www.nk.ac.kr